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9 vol.332

08

유럽 박물관 기행

지구 속의 중심 레오폴트 박물관
(Leopold Museum Wien)

오페라 연출가 이외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연출님, 우린 부산문화관에서
언제쯤 공연해요?

커버스토리

2019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Busan Symphony Orchestra

49th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ubscription Concert

하순봉 Seon-Bong Ha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디아포론 Adaptations for Orchestra
브루흐 M. Bruch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26 Violin Concerto No. 1 in g minor, Op. 26
브람스 J. Brahms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 68 Symphony No. 1 in a minor, Op. 68

김주영 악장 취임 기념

2019.9.9

Mon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Chung-Kun Oh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협연
김주영 (바이올린) Ju-Young Kim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예술성과 리더십이 뛰어난 4인의 수석지휘자 후보 중 한분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첫 번째 공연”



객원지휘
김종욱 (한음스트링오케스트라 지휘자)

화랑

국악관현악을 위한 대금 협주곡
[화연(花淵)]

판소리 협주곡
[자룡, 만경창파를 가르다]

풍류수제천

바르도

협연_대금 한영길
판소리 정선희

MASTERPIECE
IN BUSAN
마스터 피스 in 부산

2019. 8. 22(목)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 25주년 기념프로젝트1
여름방학 특별공연



Talk Opera

토크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사랑의 묘약



지휘 이명근



연출·해설 이의주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라 트라비아타 비올레타 이수진 | 알프레도 이재욱 | 제르몽 송기창
사랑의 묘약 네모리노 이재욱 | 아디나 남상임 | 벨로레 송기창
돌카마라 윤오건 | 잔네타 노연수

음악코치 이은정 | 무대 JS 공연산업 | 의상 박선미 | 조명 서경수 | 음향 조미주 | 분장 구유진
무대감독 박정범 | 조연출 임주혜 | 무대조감독 이은혜 | 스폿 나무앤숲 | 자막 손미경

2019. **8.14 (수)** 오후 3:30,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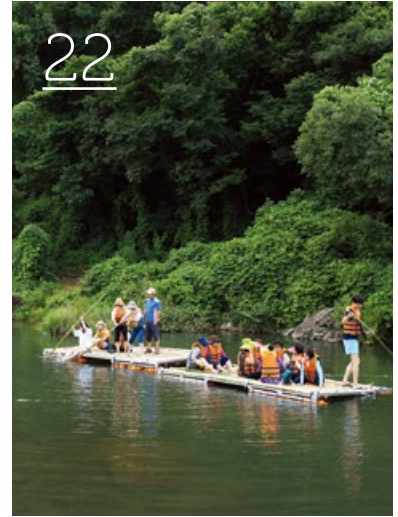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장료 | 균일 5,000원 (정기회원 20% 할인)

예매 | www.bscc.or.kr

문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8 2019 August
월간문화예술정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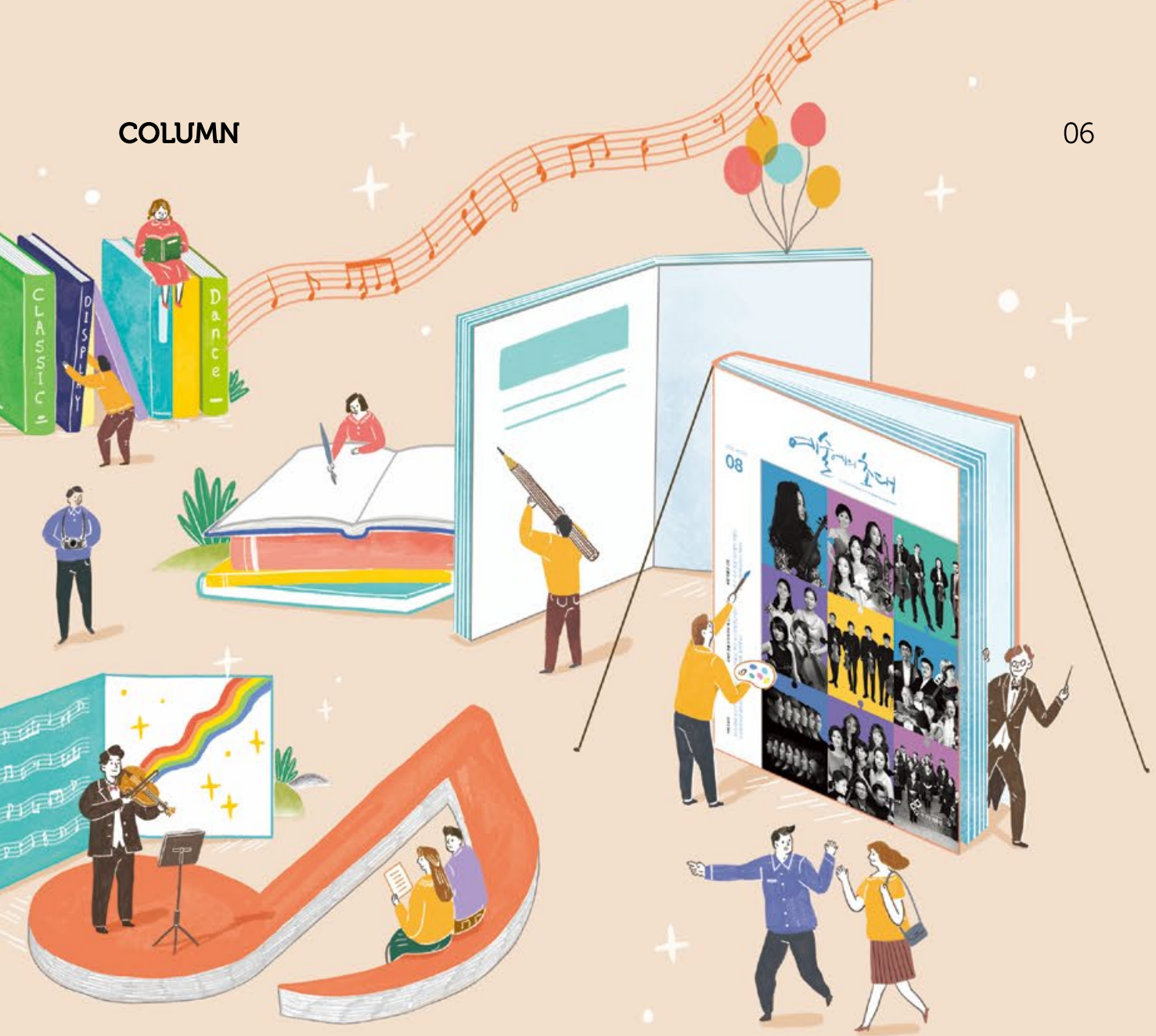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2019년 8월호 통권 332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마케팅팀장 서정환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7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 06 COLUMN
<예술에의 초대>는 아름다운 잡지이다
- 08 SCHEDULE
8월 공연캘린더
- 10 COVER STORY
2019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 14 POEM
시가 있는 풍경
- 16 BACKSTAGE OPERA
연출님, 우리 부산문화회관에서
언제쯤 공연해요?
- 18 MUSEUM OF EUROPE
지구 속의 중심 레오폴트 박물관
- 22 TRAVEL WITH YOU
아름다운 고장 밀양 테마여행

- 28 PREVIEW
- 34 ISSUE
8월, 풍성한 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부산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 38 REVIEW
- 45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 56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⑥
- 58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 65 NEW BOOK
새로 나온 책



<예술에의 초대>는 아름다운 잡지이다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본지 편집위원 **홍동식**

부산문화회관 월간지인 <예술에의 초대> 편집위원이 되고 두 번의 편집회의를 진행했다. 서늘한(?) 샌프란시스코와 유사한 요즘의 여름 날씨에 잡지 한 권을 위해 치열하게 지냈던 추억을 떠올린다. 1990년도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 시절의 졸업 작품 제작을 앞두고 있었다. 작품의 방향과 내용은 정해졌다. <KOREART> 즉 Korea + Art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한국을 소개하는 매거진이었다. 그 당시는 한국의 문화가 미국 사회에는 잘 알려지

지 않아,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과 중국, 일본이 뒤섞여 동북아시아 문화를 헷갈려하는 시기였다. 매거진을 구성하는 콘텐츠와 그래픽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활용한 퀵익스프레스라는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다. 최종 발표까지 인쇄와 제본의 완성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다.

양질의 편집 디자인을 위해서 고민 끝에

가난한 유학생이지만 당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던 애플의 맥(Mac) 컴퓨터-Power PC 8100과 레이저 프린터 세트를 구입했다. 지금과 비교하면 구매 금액이 소형차 동차 한 대 값은 되었을 것이다. 손으로 그리고 사진 작품을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 새로운 그래픽소프트웨어를 익히는 시간 등을 감안하니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라서 별도의 학습 시간이 필요 없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퀵익스프레스 그리고 페인터 등 그래픽과 도식이 많이 필요한 이미지 제작이었음에도 크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언제나 고품질의 출력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으로서도 놀랄 정도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편집 교정 또한 쉽게 이루어졌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도교수의 칭찬과 함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의 선택과 행동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 현재에도 에디토리얼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퍼라는 수식어들이 나에게 붙게 되었다.

그때부터 애플 컴퓨터를 활용한 매거진 제작은 나의 전공인 시각디자인과의 깊은 인연으로 함께 했다. 필자는 덕분에 애플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대부분 그 시절의 시각디자이너들은 유사한 경험을 거쳤으리라 생각한다. 30여 년 전 미생의 유학시절에 만든 매거진과 현재의 그 어떠한 화려한 매거진도 유사한 포맷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낯설게 받아들여진다. 매거진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가

장 선도적인 매체이다. 여러 시각적 요소들이 있지만, 현대미술의 부흥과 발전에 입각한 새로운 시각요소의 발굴과 과학의 발달로 인한 표현 방식의 다양화가 디자인의 현재를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매거진의 구조와 개념을 살펴보면 매거진이라는 간행물의 완성도는 시각적 기교와 재능에 비례하여, 매거진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은 변화와 시대적 도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편집 디자이너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부단히 조련시키고 새로운 표현의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해 왔다. 대부분의 매거진은 개성과 그 자체의 분위기, 즉 스타일을 가지며 발행되고 있다. 민족과 피부색이 다른 인간의 기본적 형상과 구조는 동일하듯이, 엄청난 수의 간행사에서 출간하는 매거진들도 유사한 구조의 포맷 속에서 디자인된다. 매거진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호(Masthead), 표지(Cover & Back Cover), 책등(Spine), 목차(Contents page), 특집기사(Feature, Article page), 일반 기사(Department, Article page), 광고면(Advertising)으로 구성이 된다. 이러한 구성은 분할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919년 최초의 디자인 공방인 바우하우스 디자인 이후 공통 사항이 되었으며 어느 매거진도 거역할 수 없는 불문율이 되었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표지 디자인은 매거진 이름과 로고가 명시되어 매거진 디자인 일부에 종속이 된다.

본지 <예술에의 초대> 또한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단 특집기사의 부재가 아쉽다. 특집기사는 그 매거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아트디렉터의 디자인 능력과 실험성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장이자 회심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특집기사 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따라서 그 매거진의 스타일이 형성되며, 또한 메시지의 본질이 전달될 수 있다. 매거진의 본문은 특집기사 페이지와 일반기사 페이지 즉 광고면을 제외한 면을 일컬으며 기사(Article)의 분량은 기획의 방향과 특집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4면, 6면, 8면 등 나름대로의 스프레드 페이지 구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단발 기사는 그 성격에 따라 분량이 결정되며, 2면이나 4면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페이지의 분량은 편집 의도에 따라서 조정된다. 특히 기사와 연관된 특별한 사진과 타이포그래피의 조화 등으로 편집 디렉터의 의도와 디자인 능력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예술에의 초대>는 엄선된 사진과 수준 높은 일러스트레이션, 세련된 타이포그래피가 활용된 레이아웃을 따라 독자들은 하나를 보면서 다른 하나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위해 잠재의식적으로 계속 글과 이미지를 연관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집 페이지의 조형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독자들은 직관적이고 동시에 자동적으로 페이지에 나타난 이미지를 볼 뿐 아니라 글을 읽는 도중에도 메시지와 관련된 이미지를 되찾아 보며 예술에 초대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예술에의 초대>는 더욱 아름다운 잡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8

2019 AUGUST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부산문화회관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챔**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부산시민회관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전 전시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연필

부산시민회관은 대극장 내진보강 및
개선공사로 12월까지 대극장 공연이
없습니다.

문의 부산시민회관(630-5200)



사랑채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7월 2일(화)-9월 8일(일) 오전 11:00
(매주 월요일, 무대점검기간인 8월 1일
-5일 휴관)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재)부산문화회관(607-6053)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전시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의 화가들'展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인상주의 거장들)
6월 8일(토)-9월 29일(일)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7천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62
※ 오전 10:30~오후 7:30(오후 6:3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 정기회원 30% 할인(본인 포함 4매까지 가능)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문화로데이 50% 할인

4

5

6

11

12

13

2019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이럴때 이런
음악' 18:00

대 전석 1만원/훈엔터테인먼트(02-332-5545)

제37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예선)
10:00

중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18

19

20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관현악단
제24회 정기연주회 19:00

대 초대/단장 이민재(010-2204-0830)

제26회 부산국악대전 본선(고등부/일반부)
09:00, 결선(고등부/일반부) 15:00, 시상식
(고등부/일반부) 17:00

중 부산국악협회(644-5211)

챔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김봄소리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챔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5

26

27

제37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본선) 10:00

대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챔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뮤즈 앙상블' 19:30
 챔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Azmar Evening Event 20:00
 중 아주인센터(010-9322-2326)

챔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아르스 현악 4중주' 19:30
 챔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_너는 나에게’
 6월 21일(금)-8월 25일(일)
 부산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1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이상한 이웃’
 11:00
 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2

3

7

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상트 페테르
 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잠자는
 숲속의 공주’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1218회 MBC목요일음악회
 ‘Friends De Comma +25’ 19:30
 1만원·5천원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상트 페테르
 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잠자는
 숲속의 공주’ 15:00,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바리톤 김주택 리사이틀 ‘이탈리아나’ 19:30
 7만원·5만원
 (주)아트앤아티스트(02-3443-9482~3)

10

 제37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3인 3색 조인트 리사이틀 13:00
 초대/최미정(010-6401-8846)

1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 25주년 기념
 프로젝트_토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15:30, 19:30
 전석 5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0-1)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노부스 콰르텟’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5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10:00
 부산광역시청(888-1921)

 부산진청소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류지원(010-3864-9889)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 4중주 with
 이윤수’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6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원더헬로’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7
 제26회 부산국악대전 예선 09:00, 결선(중등부)
 15:00, 시상식(초등부/중등부/신인부) 17:00
 부산국악협회(644-5211)

 제26회 부산국악대전 예선 09:00
 부산국악협회(644-5211)

21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 19:30
 초대/(주)크레디아프로젝트(02-741-1521)

2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
 공연시리즈 1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
 젝트 마스터 피스 in 부산’ 19:30
 전석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디 콰트로 4중주’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3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_2019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19:30
 전석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2)

 2019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대한방송문화뉴스(201-0222)

24
 정세운 콘서트 18:00
 (주)하늘이엔티(02-333-9009)

 한음챔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한음챔버오케스트라(010-9566-0368)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지역 대학 앙상블’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19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대한방송문화뉴스(201-0222)

28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V’ 11:00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9
 제10회 웰니스 클래식 ‘불멸의 베토벤 바이
 올린 협주곡’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비르투오조 앙상블’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V-Korea X 부산 19:00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864-1365)

30
 2019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콘서트 ‘메인콘서트 I’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19:30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샌드 챔버 소사이어티’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너의 이름은’ 14:00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31
 2019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11:00, 14:00, 17:00
 대 무료/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부산의치대 OB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부산의치대 OB오케스트라(010-9232-0906)

 2019 경향음악콩쿠르 10:00
 경향아트(462-707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19 BSCC CHAMBER FESTIVAL

8.14^수 - 8.30^금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www.bscc.or.kr

*** 관람료 할인 안내**

- 패키지티켓 10개 공연 동시예매 50%,
- 5개 공연 동시예매 30%, 3개 공연 동시예매 20%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유료) 20%
- 초·중·고·대학생 본인 50%
-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문화누리카드 결제시 본인 50%
- 장애인(동반 1인) 50%
- 국가유공자 본인 50%
- 의사자/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50%

※ 공연당일 증빙서류 미지참시 차액지불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감동의 무대 선사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개막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정통 실내악의 감동을 선사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19년 무대가 8월 14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열어온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올해도 노부스 콰르텟을 비롯해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 4중주, 윈더첼로, 김봄소리, 디 콰트로 4중주, 부산지역 대학 앙상블, 뮤즈 앙상블, 아르스 현악 4중주, 비르투오조 앙상블,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등 10개 단체가 출연,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실내악의 대향연을 펼친다. 국내 정상급 어쿠스틱 음향을 자랑하는 실내악 전문홀인 챔버홀은 기존의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을 리노베이션한 연주홀로, 특히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와 연주자의 호흡까지 느낄 수 있는 오디오리움(관객석)을 제공하면서 그동안 연주자들은 물론 관객들로부터 최적의 클래식 연주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8월 14일 그 화려한 축제의 막을 여는 노부스 콰르텟은 지난 2007년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김영옥, 비올리니스트 김규현, 첼리스트 문용휘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차세대 솔리스트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4중주단으로, 현재 현악 4중주 에이전시로 가장 유명한 독일의 에이전시인 치멘아워에 소속되어 있다. 지난 2014년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현악 4중주 부문 1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의 현악 4중주단으로서 최초로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해 화제를 모았으며 현재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며 세



위 || 노부스 콰르텟 아래 ||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 4중주

계 음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현악 4중주단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 4중주단은 8월 15일 관객과 만난다. 지난 1991년 독일 음악의 중심도시인 슈투트가르트에서 알고우 신포니에타 리더인 첼리스트 테오 브로스와 뜻이 맞는 슈투트가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챔버 오케스트라 멤버 4명으로 창단된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 4중주단은 1993년 독일 칼스루헤 실내악 국제콩쿠르에서 1등으로 입상한 후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헝가리 등 순회공연을 통해 사중주단으로의 확실한 면모를 갖추었다. 2002년 첫 내한공연 이후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음악팬들을 가지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 4중주단은 이번 무대에서 '섬세한 해석의 지적인 연주자'로 호평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윤수와 함께 실내악의 본고장인 독일 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2003년 오스트리아 국립방송의 초청독주회로 빈에서 데뷔한 후,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

커버스토리

해오다 2011년 예술의전당 신진아티스트로 선정된 이후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이윤수는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8월 16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이자 인제대학교 교수인 양옥진을 중심으로 강주희, 김새로미, 김소영, 변은석, 유원욱, 임다영, 정유화, 정혜주, 조문경, 조원교, 진혜나, 최주원 등 차세대 첼리스트들로 결성된 원더첼로가 무대에 선다. 원더첼로는 지난 2017년 영화의전당 초청연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레퍼토리와 수준 높은 연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8월 20일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로 우뚝 선 김봄소리가 관객과 만난다. 2013년 뮌헨 ARD 콩쿠르 우승과 함께 현대음악상을 수상한 김봄소리는 2016년 제15회 비에냐프스키 국제콩쿠르 2위와 평론가상을 비롯한 9개의 특별상, 제15회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콩쿠르 2위와 캐나다 라디오 피플스 초이스 상, 2015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와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 등 국제무대를 누비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6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협연자로 무대

김봄소리



원더첼로

에 섰던 김봄소리는 이번 무대에서 솔리스트로서 그만의 음악적 매력을 선사한다. 8월 22일은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이자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울산시립교향악단 차석 바이올리니스트 장은아,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인 비올리스트 조진영, 첼리스트 정서은으로 구성된 디 콰트로 4중주단이 무대에 선다. 단체명인 '콰트로(Quatro)'는 이탈리아어로 숫자 '4'라는 뜻으로, 4명의 연주자 각자의 개성을 하나로 모아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루려고 하는 단원들의 뜻이 담겨 있다. 24일에는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부산, 경남지역 5개 대학의 현악 앙상블팀이 출연하는 부산지역 대학 앙상블의 무대가 펼쳐진다.

8월 26일과 27일, 29일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 단체인 뮤즈 앙상블과 아르스 현악 4중주단, 비르투오조 앙상블이 무대에 선다. 지난 1988년 경성대학교 조현선, 임병원 교수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뮤즈트리오에서 출발한 뮤즈 앙상블은 이듬해 콰르텟뮤즈와 뮤즈목관오중주를 포함, 현악과 목관, 피아노가 함께하는 대규모 실내악단으로 창단했다. 올해로 창단 31년을 맞으면서 현재는 임병원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정, 비올리스트 최영식, 첼리스트 이동열, 베이스리스트 윤민우, 피아니스트 이진성 등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수석단원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창단한 아르스 현악 4중주단은 신라대학교 교수인 리더 조현미를 주축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위 || 디 콰트로 4중주, 뮤즈 앙상블, 아르스 현악 4중 아래 || 비르투오조 앙상블,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비올리스트 이성호, 신라대학교 외래교수이자 트리오 하나리 단원인 첼리스트 하경희, 비올리스트 강수이, 첼리스트 서성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19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아르스 현악 4중주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으로 있는 장재혁의 협연으로 수준높은 현악 앙상블의 무대를 선사한다.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지난 1995년 창단된 비르투오조 앙상블은 그동안 일본 사가현 연주, 가람화요음악회 100회 초청연주, 부산비엔날레 초청연주, 오주영 초청 비르투오조의 밤, 중국 심양국제교류음악회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서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김도경, 우소라, 비올리스트 김은진, 홍영선, 첼리스트 이일세, 피아니스트 박지은, 김미현의 연주로 슈만의 피아노 4중주와 5중주를 그들만의 깊이있는 해석으로 들려준다.

하는 주인공은 음악을 통한 연주자와 청중의 교감을 중시하는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인 이은옥을 주축으로 박은경, 양은정, 성현이, 신호은, 서은아, 이현지, 김상미, 이은솔, 이성호, 천재현, 이윤하, 서성은, 김근혜, 윤민우, 김미현 등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는 지난 2011년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형태의 기획무대로 관객과 만나왔다.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는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쇤베르크의 현악6중주 '정화된 밤'을 연주해 당시 부산음악계에 신선한 자극을 불러일으켰으며, 올해는 'The Rising Generation Series'를 기획해 지역의 청년 음악가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동길산**
✉ dgs1116@hanmail.net

이번 호부터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를
연재한다. 연재를 맡은 동길산 시인은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무크지 '지평'으로 등단했으며
<꽃이 지면 꽃만 슬프라> 등 시집 여섯 권과
<우두커니> 등 산문집 다섯 권, 그리고 한국신발
100년사 <고무신에서 나이키까지>를 냈다.
1992년 경남 고성 산골로 이사해 지금은
산골과 도시를 오가며 지낸다.

처마는 멀고 마음은 가까워도

바람이 다가오는 소리 들으려고
처마 끝에 풍경을 매달입니다
당신이 다가오는 소리 들으려고
마음 끝에 풍경을 매달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내심 기대하며 귀를 모읍니다
처마는 멀고 마음은 가까워도
소리는 매번 멀리서 납니다
아직은 뭐라 말 못 하겠습니다
두근대는 일 없이 잔잔한 게 좋은지
풍경이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두근대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두근대는 게 좋은지
가끔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귀를 모읍니다
소리가 들리면 들려서 두근대고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서 두근듭니다
처마는 멀고 마음은 가까워도
소리는 매번 멀리서 납니다

동길산 詩 '풍경소리'

66

처마는 멀고 마음은 가까워도
소리는 매번 멀리서 납니다

99

마루에 앉아 마당을 보고 마당 너머를 본다. 산골의 마당은 어디나 비슷해서 그다지 크지도 않은 나무와 풀꽃이 터줏대감 노릇을 한다. 마당 너머는 아랫집 붉은 지붕과 저수지 잔잔한 물결, 그리고 야트막한 산이다. 산은 야트막해도 첩첩을 이뤄 제법 운치가 난다.

첩첩을 이룬 산 사이는 셋길. 구불구불하면서 등글등글한 셋길이 산과 산 사이 고개를 넘어 내가 사는 산골마을로 이어진다. 고개 너머는 남쪽 바다. 고성 바다가 저 너머 있고 통영 바다가 저 너머 있다. 집이 남향이라서 남풍은 저 고개 지나 셋길을 따라 내게로 온다.

남풍이 불면 처마 끝에 매단 풍경이 가장 반긴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동작과 소리를 동시에 내보이며 속을 다 드러낸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저렇까. 한편으론 안쓰럽고 한편으론 부럽다. 나는 저런 사랑이 있었던가. 저리 속을 다 드러내던 사랑이 있었던가.

지금은 바람 잠잠한 한낮. 풋감을 매단 마당 감나무 이파리가 제 무게 겨워 한들댄다. 기다랗게 자란 덩굴장미 끝자락 역시 제 무게가 겹다. 몸의 무게만 무게가 아닐 것이다. 저들인들 마음의 무게가 없을 것인가. 바람 잠잠한 날에도 한들대는 마음들. 두근대는 마음들.

두근대는 마음은 바람 잠잠한 날에도 소리를 낸다. 마음 끝에 촉수 예민한 풍경을 매달고 반응하는 까닭이다. 당신이 어디에서 오든, 그리고 아무리 멀리서 오든 마음 끝 풍경은 당신을 감지한다. 당신이 오른쪽에서 오면 오른쪽으로 두근대고 왼쪽에서 오면 왼쪽으로 두근댄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은 어디서 오는가. 언제 오는가. 첩첩을 이룬 산과 산 사이 셋길로 오는가, 감나무 이파리가 제 무게 겨워 한들덜 때 오는가. 지금보다 초록이 더 진해져서야 셋길을 지나 나뭇잎 사이로 마침내 당신은 오는가. 처마는 멀고 마음은 가까워도 소리는 매번 멀리서 난다.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연출님, 우리 부산문화회관에서
언제쯤 공연해요?

**응! 올해 8월, 10월
두 번 할 거야!**

글·사진 이의주 오페라 연출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토크 오페라
(8월 14일 오후 3:30,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연 홍보 영상스팟
https://www.youtube.com/watch?v=AubgDa7_gTw



부산문화회관과 인연을 맺은 지도 강산이 반이나 변한다는 어느덧 5년, 2015년부터 이곳에서 '무대 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백 스테이지 오페라',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등 오페라 관객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강연뿐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예술로의 초대>에 거의 3년간 원고를 쓰며 관객들과 직, 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지내왔다. 그러는 동안 부산문화회관의 주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문도 하고 심사도 하면서 이

극장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밀거름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차를 이용하거나 운전을 해서 부산을 갈 때마다 만나는 드넓은 바다처럼 그곳은 설렘과 즐거운 만남들로 나를 신나게 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부산에서 원고도 쓰고 강연도 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지인 예술인들도 우연히 부산문화회관에서 오게 되면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예술로의 초대>를 보면서 내게 '부산문화회관에서 언제 공연해요?'라고 묻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럴 때마다 부산에서 공연을 연출하고자 글을 쓰는 것도, 강연을 하는 것도 아니었던 나로서는 느긋하게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지요'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극장 관계자들과도 더 여유있고 편안한 사이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일전에도 지면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2010년 월드컵 축구 성공 기원 해운대 최초 야외 오페라 '아이다' 공연으로 부산과 인연을 맺었고, 2016년 부산시민회관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전국 방방곡곡 공연 시리즈를 통해 양진모 지휘의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한국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해설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을 했다. 부산시민회관 공연도 벌써 3년이나 흘러 버렸다. 그날 참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참... 사실상 5년이나 연을 맺게 되면서 나의 친정이 되어 버린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막상 공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 여러 곳에서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5주년 기념공연의 일환으로 열리는 '마술피리' 콘서트 오페라에서 해설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내게 들어왔다. 나는 요즘 많이 하는 그 작품보다는 '라 트라비아타'와 '사랑의 묘약'을 각각 4~50분씩, 총 2시간 안되게 두 작품을 한꺼번에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역제안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드디어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드디어! 나는 거기에 더해 합리적인 실비 예산

으로 한 무대 위에 오케스트라와 큰 무대막, 대도소구 등의 그림에 성악가들이 연기까지 해서 아예 오페라 형식과 나의 해설을 넣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사실 이것은 예산과 직결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도 흔쾌히 받아 주셔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오페라 무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것에서 끝내지 않았다. 부산지역의 신인 발굴 성악가 공개 오디션을 하자고 했다. 참 많은 일들을 벌리는 나의 성격을 오피스 -특히 배경음악 팀장-에서 다 수용해주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됐다. 사실 말이 청소년교향악단이지 그 실력은 우수 어느 오케스트라에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했기에 그 열정 또한 남다를 뿐 아니라 얼마 전 새로 취임한 이명근 지휘자도 오페라에 선수였다. 공연 홍보도 오프라인 페이퍼 광고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전 세계 노출이 가능한 스팟 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유튜브에도 올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홍보영상 스팟도 한국을 대표하는 제작 업체에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오페라 '리골레토'의 작품 연출의뢰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다. 리골레토! 그 작품은 리골레토 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타이틀 롤이 중요한 작품이다. 게다가 자주 하는 풀 프로덕션 작품이 아니기에 나도 이탈리아에서 16년(?) 전에 협력연출을 하고 이후 한국에서 10년 전 연출을 하고 난 이후 작품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리골레토가 대한민국의 국보급 바리톤 한양대학교 고성현 교수란다. 욕심이 났다. 이 작품은 내가 해야만 하는 큰 이유가 '고성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컸다. 나와는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 그와 다른 작품들은 했지만, '리골레토'에서 만나는 이 기회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10월에 이탈리아 국제콩쿠르 심사일정이 있었다. 일정이 딱 겹쳐서 둘 다를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콩쿠르 주최 측에 일정을 며칠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미 광고가 나가서 안 된단다고 한다. 나는 (재)부산문화회관 측에 이탈리아에 가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상 (재)부산문화회관에서 간곡



|| 오페라 '사랑의 묘약'

하게-사실상 집요하게- 이 작품을 맡아 달라고 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요청이 있었지만 다른 여건과 상황으로 내가 거절했었으니, 이번에까지 못한다고 하는게 쉽지는 않았다. 음... 많은 고심을 했다. 국제콩쿠르 심사에 가서 나의 명예를 드높이고, 훌륭한 신인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공연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프로덕션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탈리아에 연락해서 내가 이 공연을 해야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쪽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다음 대회-2년 후-에 다시 초청하겠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재)부산문화회관의 오페라 공연을, 그것도 나의 친정집이 되어버린 부산문화회관에서 2개월 사이로 두 작품을 올리게 됐다. Mamma Mia!

두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다. 아주 오래전인 35년 전 아버지의 직장 부산발령으로 1년간 남천동으로 옮겼던 내 주민등록지를, 내 거주지를 부산으로 한번 알아볼까 한다. 그만큼 나는 이번 두 번의 프로젝트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걸고 작품 완성에 집중을 다 할 생각이다. 나의 출사표가 이 지면을 통해 처음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부산과는 참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지구 속의 중심

레오폴트 박물관
(Leopold Museum Wien)

글·사진 김성민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연금술사

학창시절 필자는 감사하게도 실패라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했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며 크게 낙심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 오래된 친구가 추천해준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진)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이었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소설 속 어린 양치기의 여행기는 단순한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아마도 그 시절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힘겨워했던 한 인생 선배가 여행을 통해 얻은 값진 진리를 동화와 같이 쉽게 풀어놓은 책이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용기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작가의 담담한 글이 아마도 10년간 필자를 유럽에서 행복한 여행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버팀목이었던 것 같다. 6월부터 계속 오스트리아 빈에 대해 쓰고 있다. 오늘은 용기 있는 예술가 에곤 실레(Egon Schiele, 1890~1918)와 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레오폴트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빈의 예술 복합공간

무제움스 콰르티에(Museums Quartier, MQ)

1998년부터 재건축을 시작하여 2001년 6월에 오픈한 빈의 무제움스 콰르티에, 일명 엠큐(MQ)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거대한 마구간을 개조하여 야심차게 만든 문화예술 복합공간이다. 이곳에는 오늘 소개할 레오폴트 박물관을 비롯하여 현대미술관(MUMOK), 어린이미술관, 담배박물관 등 다채로운 전시관과 공연, 극장, 카페 등 독립된 공간들이 밀집되어 있고 밤에는 환상적인 조명까지 밝혀 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빈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레오폴트 박물관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미술품 수집가 루돌프 레오폴트(Rudolf Leopold)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트 레오폴트(Elisabeth Leopold)로부터 사들인 약 5,200여점의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특히 에곤 실레의 작품을 무려 220여점이나 소장하고 있어 에곤 실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성지(聖地)와 같은 곳이다. 물론 이 미술관은 에곤 실레뿐만 아니라 클림트(Klimt)와 코코슈카(Oskar Kokoschka), 게르스틀(Richard Gerstl)과 같이 빈의 세기말 미술가들의 다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니 3시간 이상 여유있게 관람할 것을 추천한다.



- 1 매년 색상이 달라지는 선베드가 인상적인 박물관 지구 전경
- 2 레오폴트 박물관 모습
- 3 무제움스 콰르티에(Museums Quartier, MQ)





4



5

에곤 실레와 화가 클림트

수도 빈에서 3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에곤은 할아버지가 기차 기술자였고 아버지는 기차 역장이었다. 당시 국가주도로 기차사업이 확장되던 시기라 에곤은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아마추어 소묘가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에곤의 아버지 아돌프가 매독성 질환을 겪고 있었는데 그가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감염되면서 세 명의 자녀가 사산되고 첫째였던 엘비라도 10살에 죽음을 맞이한다. 에곤의 아버지는 점점(매독으로 인한) 광기에 사로잡혔다가 에곤이 15살이던 1905년 12월 31일 죽음을 맞이한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죽음과 형제들의 죽음은 에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그의 작품에 반영되었다.

1906년 오랜 전통의 빈 미술아카데미에 입학한 에곤은 처음에는 학교 수업을 잘 따랐으나 너무나 보수적인 학교 수업에 곧 실증을 느끼게 된다. 특히 그의 교수였던 크리스티안 그리펜케를(Christian Griepenkerl 1839~1912)은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로써 고전신화와 알레고리에 관련된 그림

을 그렸고 특히 당시 진보적인 클림트를 중심으로 창립된 빈 분리파를 혐오하며 학생들에게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에곤은 오히려 빈 분리파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1907년 마침내 클림트를 만나게 된다.

“자네는 이미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28살 어린 에곤의 작품을 보고 클림트가 했던 말이다. 이후 클림트는 에곤을 유력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가끔은 그의 작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후자는 클림트의 제자 에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작품은 전혀 닮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등한 예술가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에곤은 평생 클림트를 존경했으며 1918년 클림트가 죽자 그의 죽은 모습을 스케치로 남기기까지 했다.

사실 에곤과 클림트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세기말 빈은 마치 양면의 동전처럼 서서히 몰락해가는 산업과 전쟁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밤새도록 왈츠를 찾고 길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넘쳐났다. 클림트는 그런 모순적인 빈을 표현했으나 비교적 장식적이고 밝은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반면 에곤은 그의 작품을 통해 철저히 어둡고 비관적이고 성(性)을 탐닉하는 빈의 어두운 부분을 주로 그렸고 배경은 생략되었고



- 4 박물관에 전시된 에곤 실레의 작품
- 5 에곤 실레의 여자친구 발리
- 6 자신에게 관심이 많았던 에곤 실레는 200여점이 넘는 자화상을 남겼다.

클림트에 비해 훨씬 간결한 색채를 사용했다. 특히 에곤은 수많은 자화상과 함께 성(性)을 표현한 작품을 상당히 과감하게 그렸는데 이런 이유로 성도착증 환자나 어린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인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델들과 관계를 맺었던 클림트에 비해) 에곤은 클림트의 소개로 만난 발리라는 여성과 4년간 교제하다가 에디트라라는 중산층의 여성과 결혼을 했으니 그림과 실제 삶은 많이 달랐다고 할 수 있겠다.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했던 화가

1912년 외설시비로 감옥에 갇힌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에곤은 오히려 유명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1912년 쾰른, 뮌헨에서 작품을 출시했고 1913년에는 클림트가 회장으로 있는 오스트리아 예술가연합의 정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곧 함부르크, 브레슬라우, 슈투트가르트, 드레스덴, 베를린과 같은 독일의 도시에 알려졌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당시 에곤의 작품은 600크라운에 거래되었는데 2크라운이면 빈의 일급 식당에서 포도주가 곁들여진 정찬을 즐길 수 있었다니 그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전쟁 중에 결혼을 한 에곤은 이후 색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몸매에 훨씬 풍성하고 입체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고 고백했던 에곤의 말처럼 그의 작품은 여전히 무겁고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만들었다.

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지만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다. 에곤은 임신 6개월이었던 아내를 스페인 독감으로 잃고 3일후 자신도 같은 병으로 28세에 죽음을 맞이한다. 당시 전쟁과 독감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자 빈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돌이킬 수 없는 제국의 멸망을 가져다준 기성세대에 반감을 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에곤 실레를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로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만 사회적으로 금기시했던 성(性)에 대해 아무런 꾸밈없이 용기있게 자신만의 예술로 승화시킨 에곤은 이후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된다. 용기있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하다는 말이 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지고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100년 전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용기있게 표현하며 살다간 에곤 실레의 작품들은 현대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테마가 있는 여행

수려한 자연과 명승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밀양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初伏)이던 지난 7월 12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 1 평리농촌체험마을에서 가진 뗏목타기 체험
- 2·3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이 내려다보이는 영남루
- 4 노래비 앞에서 '밀양아리랑'을 부르는 정기회원들
- 5 단군 이래 8왕조의 시조 위패를 모신 천전궁

8월 테마여행지는 수려한 자연과 명승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밀양. 평양의 부벽루, 진주의 축서루와 더불어 3대 명루(名樓)로 불리는 밀양 영남루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탄생한 독립운동의 성지 밀양을 알리는 해천항일독립운동테마거리, 그리고 시원한 여름나기 체험이 펼쳐진 평리농촌체험마을까지 밀양의 싱그러운 여름을 즐길 수 있었다.

아침부터 잔뜩 찌푸린 날씨에도 테마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들의 표정은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밝기만 하다. 달리는 버스에서 정담을 나누는 사이 밀양 여행의 첫 목적지인 영남루에 도착했다.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최해화 문화유산해설사를 따라 본격적인 영남루 탐방에 나섰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영남루는 화려하면서도 뛰어난 건축미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목조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건물의 형태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2층 다락형으로, 중앙 본루(本樓)를 기점으로 좌측에는 능파당, 우측에는 침류각을 이루(翼樓, 부속 누각)로 거





느리고 있다. 특히 본루와 침류각 사이에는 달 월(月)자형의 층층각이라는 계단형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건물의 배치와 구성이 독특하다. 평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한 충량(衝樑)과 퇴량(退樑)은 물론 대형 대들보는 모두 화려한 용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당대 명필가와 대문장가들의 시문 현판들이 즐비하게 걸려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중에서도 내부 대들보에 걸린 '영남제일루(嶺南第一樓)'와 마루청 정면에 걸린 '영남루(嶺南樓)'라는 현판은 이 누각이 지어질 때 중수를 담당한 밀양 부사 이인재의 아들인 이증석(11세), 이현석(7세)의 솜씨라고 한다. 현판 글씨의 크기도 크

기지만 그 뛰어난 서체에 모두 놀라 입을 다물어지지 않는다. 누각에 올라선 회원들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잠시 아름다운 정취에 젖었다.

영남루 경내에는 단군 이래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등 8왕조의 시조 위패를 모신 천진궁과 아랑의 정절을 기리기 위한 아랑각, '이별의 부산정거장', '군세어라 금순야' 등 해방전후 우리가요계를 이끌었던 대중가요 작곡가 박시춘 선생의 생가 등이 함께 자리해있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아랑의 전설은 훗날 고전소설 '장화홍련'의 모태가 되었고 현재는 밀양을 대표하는 문화컨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

테마가 있는 여행



6.7 밀양 독립운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천항일독립운동테마거리

다. 또, 아랑과 관련된 전설은 민요인 ‘밀양아리랑’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가사에도 등장하는데, 그래서인지 영남루 마당 한편에는 ‘밀양아리랑’ 노래비도 세워져 있다. 노래비 앞에서 최해화 문화유산해설사의 선창으로, 회원들이 부르는 흥겨운 ‘밀양아리랑’이 영남루에 울려퍼졌다. 영남루 앞 마당에 보존된 국화 모양의 석화(石花)까지 모두 둘러본 회원들은 영남루에서 불과 걸어 5분 거리에 있는 해천항일독립운동테마거리로 자리를 옮겼다.

밀양은 영화 ‘암살’에도 등장했던 의열단 단장인 약산 김원봉 선생 등 일제 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태어난 독립운동의 성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으로 손꼽힌다. 특히 시내 중심지인 내일동과 내이동을 경계로 흐르는 길이 600여m 해천 주변은 독립운동가들이 용기종기 모여 함께 자란 곳으로 유명하다. 김원봉 선생 생가를 비롯해 윤세주 선생 생가가 자리하고 있으며 고인덕, 김대지, 김병환, 황상규, 윤치형, 전홍표 선생 등 독립운동가 10여명이 이 곳 출신이다. 거리 벽면에는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70명의 명패가 붙여져 있으며, 해천을 따라서는 ‘3.13 밀양만세운동’ 등 13개 주제별 항일운동 관련 벽화도 그려져 있어 이 지역 독립운동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곳 김원봉 선생의 생가터에는 현재 밀양독립운동 의열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의열기념관은 항일구국운동 중 가장 치열했던 의열투쟁사, 의열단의 항일투쟁 변천과정, 밀양출신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 동영상, 조형물, 사진 등이 전시되고 있어 밀양독립운동을 알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해천항일독립운동테마거리 탐방을 마지막으로 오전일정을 끝낸 회원가족들은 다음 일정을 위해 영남 알프스 백마산 자락에 위치한 평리농촌체험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영남알프스의 숨은 에메랄드라 칭하는 밀양호의 아랫마을인 평리농촌체험마을은 고사천 계곡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여름나기 체험으로 유명하다. 체험에 앞서 마을주민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식사로 고픈 배를 채운 정기회원들은 우선 논메기 잡기 체험에 나섰다. 논 한켠을 가두어 만든 체험장에 들어서자 팔뚝만한 메기들이 회원들을 피해 달아난다. 여러번의 뜰채질 속에 하나둘 메기가 잡히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온다. 잡은 메기는 기념사진을 찍은 후 다시 눈에 놓아 주고 뗏목타기를 위해 인근 고사천 계곡으로 이동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시원한 계곡물에 미리 준비한 뗏목 4대가 떠 있다. 뗏목에 올라타 청량한 계곡 바람을 맞으며 계곡물에 발도 담구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밀양의 여름을 즐겼다.

마을 인근에 자리한 밀양댐 물문화관과 전망대를 마지막으로 밀양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정기회원들은 또 하나의 여름 추억을 기억속에 남기며 부산으로 향했다.

9.6 **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으로 떠나는 늦여름 여행

대가야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 고령으로 떠나는 역사기행.
대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대가야박물관,
대가야 왕릉전시관 등을 둘러보고 가얏고마를
에서 가야금 연주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일정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고령 도착, 우륵박물관 탐방
가얏고마를 가야금 연주체험
- 12:00 중식
- 13:30 대가야박물관,
대가야 왕릉전시관 답사
- 16:0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은 지난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으로, 매일 둘째주 금요일이면 정기회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 해뜨는 도시 포항으로 떠나는 겨울여행을 시작으로 살아 있는 자연사 박물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2월), 13주년 기념 다시 떠나는 경주 수학여행(3월), 벚꽃 가득한 진해로 떠나는 근대문화투어(4월), 대구 근대역사 골목투어(5월), 충절의 고장 진주여행(6월), 아리랑의 고장 밀양으로 떠나는 초여름 여행(7월) 등 역사와 자연,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테마여행은 정기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동반 1인과 함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그리고 8월에는 여름 폭염을 피하기 위해 테마여행을 진행하지 않으며, 9월 테마여행은 추석 연휴기간을 피해 첫 주 금요일인 9월 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수열과 조진주의 RUSSIAN NIGHT

부산시향, 열정의 올림

2019. 8. 13 화요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35 P. I.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림스키-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교향적 모음곡 Op. 35 N. Rimsky-Korsakov | <Scheherazade> Symphonic Suite, Op. 35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프리뷰

Preview

1



일시 8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9일 금요일 오후 3:00,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6만원, R석 4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잠자는 숲속의 공주


폭염 속의 한여름을 시원하고 화려하게 수놓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오는 8월 8일과 9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온 가족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작품 중 하나로, 정통 클래식 발레와 피겨스케이팅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은반 위에서의 화려한 환상 동화를 선사한다.

1967년 고전 발레의 대가 콘스탄틴 보얀스키에 의해 설립된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당대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와 피겨 스케이터들로 구성되어 ‘아이스발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지난 1995년에는 정규 공연장에서의 아이스링크 설치를 위한 특수공법을 개발, 미국과 캐나다의 정규 오페라극장에서 세계 최초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조의 호수’ 등을 선보였다.

이후 스웨덴, 벨기에,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6,000회 이상 공연을 펼쳐온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국내에는 지난 1998년 처음 소개된 후 지난 20여 년간 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매년 여름 시즌의 가장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의 아이스발레 공연은 여타의 아이스 쇼와는 그 품격과 수준을 달리한다. 러시아 정통 발레의 우아한 군무와 역동적인 피겨 스케이팅의 회전과 도약 등 화려한 기술이 차이콥스키의 유려한 선율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스발레만의 뛰어난 예술성과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정통 공연장에서의 품격 있는 아이스발레 감상을 위해 공연장 무대를 특수공법을 통해 아이스링크로 탈바꿈시키고 공연장의 전문 무대장치, 조명시설 등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일반 아이스링크장에서의 아이스 쇼와는 차원이 다른 완성도 높은 명품 공연을 선사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저주의 걸려 100년 간 잠든 오로라 공주를 구하는 데지레 왕자의 용감하고도 지고한 사랑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수석안무가 콘스탄틴 라사딘(Konstantin A. Rassasin)의 안무로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 25주년 기념 프로젝트 특별한 여름방학 선물 토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사랑의 묘약’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창단 25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토크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사랑의 묘약’을 선보인다.

8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두차례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에 정통한 신임수석지휘자 이명근과 최연소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자로 활동한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가 의기투합해 첫 선을 보이는 무대로, 여름방학을 맞은 부산지역 청소년들에게 재미있는 오페라를 들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 오페라의 연출을 맡은 이의주는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이탈리아 바랄로 발세시아-비오티 국제성악콩쿠르 심사위원(2015년), 이탈리아 토스카 국제성악콩쿠르 심사위원장(2017년) 및 심사위원(2018년)을 역임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로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부산예술인에게 폭넓은 기회와 다양한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만40세 미만의 지역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소프라노 이수진과 남상임, 노연수, 바리톤 윤오건 등 4명의 지역 성악가들이 주역으로 무대에 선다.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렛타로 선발된 소프라노 이수진은 부산대학교와 이탈리아 O. Respighi 국립음악원 졸업을 졸업하고 그동안 오페라 ‘마술피리’ 밤의 여왕, 오페라 ‘코지 판 투테’ 데스피나 등 10여회의 오페라 무대에 출연했다. 소프라노 남상임은 이번 무대에서 ‘사랑의 묘약’의 ‘아디나’로 고향인 부산을 찾는다. 경희대학교와 이탈리아 Scuole Civiche Di Milano 최고연주자 성악과정 및 오페라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남상임은 그동안 오페라 ‘사랑의 묘약’, ‘리골렛토’, ‘피가로의 결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사랑의 묘약’ 돌카마라로 선발된 바리톤 윤오건은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Santa Cecilia 국립음악원, Tito Schipa 국립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부산, 경남 지역 오페라 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쳐왔다. 이 외에도 오페라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교사 노연수가 ‘사랑의 묘약’ 잔네타로 선발되어 생애 첫 오페라에 도전한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4인 외에도 국내 최정상 테너 이재욱과 바리톤 송기창이 이번 토크 오페라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




일시 8월 14일 수요일 오후 3:30,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Preview

2

프리뷰



Preview

3



일시 8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 공연시리즈 1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 마스터 피스 in 부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을 위한 특별한 무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가 8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그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현재 월드뮤직오케스트라 10 대표 겸 지휘자, 한 음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는 김종욱으로,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처음 호흡을 맞춘다.

지휘자 김종욱은 단국대학교 국악과와 용인대학교 대학원 국악과에서 대금을 전공한 후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악과를 거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지휘전공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충남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제20호 대금정악 전수자로 활동

하며 탄탄한 국악 베이스를 지닌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김종욱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 청소년국악단을 객원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김종욱 지휘자는 ‘마스터 피스 in 부산’이라는 주제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지난 35년간 여정 속에서 앞으로의 음악적 방향을 찾아보고 새로운 걸작을 품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첫 곡으로 지난 2005년 제3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위촉곡인 백규진 곡 ‘화랑’에 이어 화려하면서도 담백한 대금의 멋과 맛이 관현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조원형 곡 대금협주곡 ‘화(花)연(淵)’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수석 한영길의 연주로 들려준다. 판소리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박상우 곡 ‘자룡, 만경창파를 가르다’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의 소리와 함께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본다. 김성경 곡 ‘풍류수제천’은 관악합주곡인 ‘수제천’에 현악기와 저음악기, 타악기 그리고 편종과 편경을 편성되어 장중함이 더해진 곡으로 클라리네티스트 이원기, 오보이스트 강인호, 플루티스트 김성식, 더블베이스리스트 이기진의 객원연주로 들려준다. 마지막 곡은 전래민요인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주제선율로 사용한 황준호 곡 새야새야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바르도’. ‘돌(do) 사이(Bar)’라는 뜻을 가진 ‘바르도’는 티베트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다시 환생하기까지 머물게 되는 중간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해 직접 빛어낸 단원들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2019년 무대가 8월 2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인 ‘몸으로 쓰는 시’는 지난 2016년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을 계승한 무대로,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2019년 무대에서는 단원 김시현의 ‘사람연습 chapter 1. 무례-침범하지 않기’, 정진희 ‘틀IV(어떠하리···)’, 김미란 ‘청색시대(Blue period)’ 등 세 작품이 선보인다.

첫 작품인 김시현의 ‘사람연습 Chapter 1. 무례-침범하지 않기’는 타인의 영역에서 그들의 규칙을 존중하고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단원 김시현과 조현배가 춤사위를 펼친다. 경성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무용교육학과를 수료한

안무자 김시현은 랄랄라 거리춤 페스티벌, 2012 제16회 신인춤제전, 울산시립무용단 나는무용수다 II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단원으로 있는 정진희는 창작춤 ‘틀IV(어떠하리···)’로 관객과 만난다. ‘틀IV(어떠하리···)’는 사회에서의 이중성과 모순된 행동들을 본인들의 잣대에 끼워 맞춤으로써 점점 더 두꺼운 틀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고뇌들을 전통 춤사위로 표현한 작품으로 정진희, 김수잔의 춤사위로 만날 수 있다. 부산여자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한 정진희는 그동안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주역으로 다수 무대에 섰으며 2002 동아시아 경기대회 개폐회식, 2008 세계사회체육대회 개막식 보조안무를 맡은 바 있다.

마지막 작품인 부수석단원 김미란의 ‘청색시대(Blue period)’는 친구의 자살과 화단의 냉대, 가난과 절망으로 깊이 침잠되어 오로지 단 하나의 색인 파란색으로만 그림을 그렸던 피카소의 ‘청색시대(1901~04년)’를 창작화한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첼리스트 김성덕의 특별출연으로 단원 김미란, 강모세, 안주희, 최의욱, 장영진, 박미나, 류가빈, 하현정, 이호준이 무대에 선다. 부산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한 김미란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로 있으며, 그동안 다수 작품을 안무했다. 



일시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Preview

4H

프리뷰

Preview

5



일시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V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인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가 8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의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아온 마티네콘서트는 올해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설로 오페라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TBN 부산교통방송 손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음악감독, 베하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로 있는 김봉미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박은주, 테너 김성진, 바리톤 안세범의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구노의 대표적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파우스트’를 들려준다.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프랑스퐁 오페라의 창시자로 사랑받는 작곡가 구노는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 ‘파우스트’ 등 문학의 감동을 주옥같은 음악으로

풀어내면서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무대를 아우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김봉미는 지난해 시즌 4 무대에 이어 올해 다시 부산관객들과 만난다. 1부 무대에서는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을 첫 곡으로, 소프라노 박은주가 ‘꿈속에 살고 싶어라’, ‘사랑이여 용기를 주세요’, 바리톤 안세범이 ‘맴, 거짓말의 여왕’, 테너 김성진이 ‘사랑, 사랑, 나의 온 존재가 흔들린다’를, 2부 오페라 ‘파우스트’에서는 구노 특유의 명쾌한 선율과 투명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발레왈츠의 음악’에 이어 바리톤 안세범의 ‘이 곳을 떠나기 전에’, 테너 김성진이 ‘정결한 집’, 소프라노 박은주가 ‘보석의 노래’, 그리고 소프라노 박은주, 테너 김성진, 바리톤 안세범이 3중창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등을 들려준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은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다수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했다.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성진은 이탈리아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벨기에, 콜롬비아 등에서 오페라 주역 및 솔로리스트로 활동해 왔다. 바리톤 안세범은 이태리 ‘FAUSTO RICCI’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EUTERPE’ 국제콩쿠르 3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외래교수, 해피양상블 단원, 부산 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다수 무대에 서오고 있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세대를 초월한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아름다운 앙상블 연주와 환상적인 샌드애니메이션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문학콘서트 '소나기'가 8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소설 '소나기'는 풋풋한 소년, 소녀의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첫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감각적인 묘사로 그려낸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배우의 낭독과 동서양 악기의 앙상블 연주, 그리고 샌드애니메이션이 어우러지면서 아름답고 순수한 추억 이야기를 무대 위에 펼친다. 첫사랑의 복잡 미묘한 감정은 뮤지컬 배우들의 감각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며, 무대 위 큰 화면에서 펼쳐지는 샌드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소설 속 이미지를 그려내면서 관객들을 작품 속 세계로 이끈다. 특히 해금, 양금,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기타, 하모니카 등 동서양을 초월한 앙상블 연주와 소설 속의 바람과 비, 시냇물, 새소리 등 악기와 소품을 통해

들려주는 동화 같은 자연의 소리가 절묘한 현장감과 더불어 오감으로 느끼는 문학적 시간을 선사한다.

림에이엠시 대표,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는 서정림이 총연출 및 제작을 맡은 이번 무대는 뮤지컬 배우 배혜선, 김기창이 낭독 배우로 무대에 서며 극단 토인 대표 박진수가 샌드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 연주자로는 상명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 교수인 동준모가 음악감독 및 클라리네티스트로 참여하며, 백석대학교 교수이자 첼리스트 이재은,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재은, 기타리스트 이정엽, 피아니스트 채지혜, 양금-타악주자 고명진, 해금주자 이태경, 하모니카주자 진혜린 등이 출연, 파헬벨 '캐논'을 시작으로 보리수(슈베르트 곡), 섬집아기(이흥렬 곡), 고향생각(현제명 곡), 양금독주 '휘모리변주', 해금 랩소디(페터 신티러 곡), 오빠생각(박태준 곡), 카르멘 전주곡(비제 곡), 아, 그대였던가(베르디 곡), 비에 젖은 해금(류형선 곡), Fade Out(신현정 곡), 울게하소서(헨델 곡), 긴머리 소녀(오세복 곡) 등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아리아, 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한편, 문학콘서트 '소나기'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매년 전국 순회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일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6

반갑다 여름아!!! 8월, 풍성한 문화축제가 펼치는 부산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부산의 여름축제가 8월 한달간 펼쳐진다. 올해도 부산을 넘어 전국의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바다축제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코미디 축제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여러분을 찾아간다.



여름은 부산에서! 축제의 바다 속으로! 제24회 부산바다축제

8월 2일(금)-6일(화) 부산시내 주요 해수욕장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501-6051, www.bfo.or.kr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 바다축제는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된 후 매년 여름, 부산의 바다를 찾는 전국의 피서객들에게 많은 추억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8월 2일 국내 최고의 휴가지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 펼쳐지는 개막행사에서는

한여름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개막파티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3일과 4일,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는 한 여름 해변에서 펼쳐지는 프라이빗한 풀사이드 파티인 ‘나이트 풀 파티(Night

Pool Party)’가, 같은 기간 해운대 구남로 분수대 일원에서는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신나는 음악을 함께 즐기는 ‘물의 난장(Water Carnival)’ 행사가 펼쳐진다.

광안리해수욕장은 바다축제기간 내내 음악으로 가득 찬다. 8월 4일에는 광안리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정기고 퀸텟, 전제덕 with 허소영, 박주원 밴드, 스카재즈유닛 등 국내외 최고 뮤지션이 함께하는 ‘부산 Sea & Jazz Festival’이, 5일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DJ들이 펼치는 신나는 디제잉 경연대회 ‘BeFM Expat DJ Contest’가, 6일에는 힙합 뮤지션들의 무대 ‘광안리 힙 나잇(HIP NIGHT)’이 개최된다. 또, 3일에는 광안리 밤바다의 야경을 만끽하며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달리는 ‘나이트 레이스 인 부산’이 올해도 열린다.

8월 3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아름다운 다대포 낙조를 배경으로 김창완밴드, 자전거탄풍경, 추가열밴드, 육중완밴드, 세자전거 등 포크밴드가 출연하는 어쿠스틱한 무대 ‘다대포 포크樂 페스티벌’이, 4일에는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노래와 댄스경연의 장 ‘부산 청소년 바다축제’가 열린다. 이밖에 8월 1일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는 국민가수 현인 선생을 기리는 ‘현인가요제’가, 2일 송정해수욕장에서는 서핑과 낭만의 해수욕장인 송정해수욕장을 알리는 ‘송정해변축제’가 펼쳐진다.



웃음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부산의 여름 제7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8월 23일(금)-9월 1일(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야외극장,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조직위원회 916-8828, www.bicf.co.kr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 국제코미디페스티벌로 시작해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코미디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8월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의 일곱 번째 화려한 막을 여는 개막식은 8월 23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펼쳐진다.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개막식에서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의 상징이 된 국내의 최정상 코미디언들이 참여하는 블루카펫에 이어 축하무대와 서커스, 코미디, 퍼포먼스 등 최고의 무대가 펼쳐진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재미로 중무장한 신규 공연들로 시작 전부터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올해 더욱 확

대된 콘텐츠로 관객들을 맞는다. 유튜브 최초로 극장공연을 선보이는 '보물섬', 개그우먼 박미선의 최초 극장공연인 '여탕쇼', 릴레이 코미디 위크라는 독특한 형태의 개그를 선보이는 '크리웨이터', 개그맨 황현희, 박성호, 김대범으로 구성된 '썰빵' 등 풍광화된 최고급 라인업이 준비돼 있다. 또한 매진신화를 이어가는 기존 공연팀은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여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저글링, 마술, 비트박스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결합한 '옹알스', 오직 성인들만을 위한 유쾌한 욕소를 매년 선보이는 '변기수 사리사욕쇼', 매회 다른 애드립과 캐스팅 조합으로 늘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는 개그연극 '그놈은예뻤다', 개그, 마술, 노래, 애드립이 한 데 어우러진 전연령 개그쇼 '쇼그맨', 대한민국 최초 듀오 스탠드업 코미디쇼 '까브라더썸', 코미디계의 꽃미남 4인과 특급 게스트가 펼치는 콩트 '이리오SHOW', 국내 최장수 개그트리오의 코미디쇼 '졸탄', 국내 유일무이한 어린이를 위한 교육 코미디 '쫂아맨과 멜롱이의 배고파요! 미스터 골고루!',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의 시작 '코미디얼라이브쇼', 드로잉 서커스 듀오 '크로키키 브라더스', 관객참여형 콩트 개그쇼 '투깝쇼'까지 총 15개 국내공연팀이 준비중이다. 또, 매년 다양한 해외공연 라인업으로 신선한 웃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올해 더욱 탄탄해진 해외공연으로 관객들의 기대감을 채울 예정이다. 팝 음악에 기반한 상상력을 결집한 마임 코미디로 아메리칸 갓 탤런트 결선에 진출한 'Tape face'를 비롯해 총 네 팀이 부산을 찾는다.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어바웃 레전드

About Legends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8월 30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마루'는 '파도가 일 때 치솟은 물결의 꼭대기, 산 위의 정상'이라는 뜻을 지닌 순수한 우리말로,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 속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8.30^토 - 10.1^화

부산문화회관, 區 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지역 각 학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올해 부산국제마루음악제의 주제는 '어바웃 레전드(About Legend)'. 일반 시민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베토벤, 멘델스존,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등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유명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프로그램으로 구성, 그 시대정신이 깃든 독보적인 작품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을 통한 감동을 전한다. 특히 올해는 개막공연을 빛내줄 이스라엘 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앙상블 오케스트라(Tel-Avivo Soloists Ensemble Orchestra)를 비롯해 중국 샤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Xiame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립교향악단,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기악단 등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6개 대륙 20여 개국의 초청 연주자들과 국내 연주자들, 드림프로젝트 출연자들까지 2,000여명의 연주자들이 교향악과 앙상블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올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콘서트를 비롯해 총 7개의 메인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지휘자 바락 탈(Barak Tal)이 이끄는 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는 축제 기간 중 총 4개의 메인콘서트 주인공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는 수준높은 전문 연주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지휘자 바락 탈의 뜻에 따라 지난 2001년 창단한 후 이스라엘을 비롯해 유럽 지역의 방송과 수많은 공연을 통해 비평가와 대중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우선 8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콘서트에

● 이스라엘 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앙상블 오케스트라

● 중국 샤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는 아리랑 고적대의 흥겨운 개막 퍼포먼스에 이어 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출신의 떠오르는 신예 피아니스트 톰 보로우가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을 시작으로 피아노협주곡 '황제', 교향곡 제7번 등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베토벤의 대표곡으로 무대를 꾸민다. 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는 다음날인 8월 31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06년 제 13회 비에나브스키 바이올린 국제콩쿠르 입상자인 폴란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마호스카와 함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인 멘델스존의 곡으로 무대에 서는 한편, 9월 4일에는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클라리네티스트 마르틴 살로나와 함께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또한, 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는 9월 3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개최되는 메인콘서트 세 번째 무대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본선)'에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다.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는 국내외 연주자들의 경연을 통해 우수한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무대로, 본선에 오른 연주자들이 마지막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9월 5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기악단의 메인콘서트 다섯 번째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 예술감독인 유경조가 지휘하고 김혜련(가야금), 김성진(피리), 허종훈(바리톤)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강덕 곡 '염불주제에 의한 환상곡'을 비롯해 가야금협주곡 '침향무', '피리협주곡 '자진한일', 가곡 '고흥의상, 나그네' 등을 들려준다.

다음날인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메인콘서트 여섯 번째 무대에서는 지휘자 렌창 푸(Renchang Fu)가 이끄는 샤먼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선다. 지난 1998년 창단된 샤먼필하모닉오케스트라(XPO)는 국가가 아닌 샤먼시와 사회적 후원단체로부터 영구지원을 받는 중국 최초의 오케스트라로 지난 20년간 국내외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1,600회 이상의 훌륭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14세의 어린나이에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팔로마 소(Paloma So)의 협연으로 교향시 '핀란드야'를 시작으로 바이올린협주곡 작품 47, 교향곡 제2번 등 '핀란드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벨리우스의 곡을 들려준다.

2019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의 마지막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꾸며진다. 9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최수열

◎ 관악영관립부산



◎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만 무싸하자예바



의 지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인민 예술가이자 카자흐 국립예술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만 무싸하자예바(Aiman Mussakhajayeva)의 협연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차이콥스키, 린스키-코르사코프의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해외 초청연주자들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앙상블 콘서트'는 올해 해운대문화회관(9월 5일, 17일)과 동래문화회관(9월 6일, 18일), 사상 다누리홀(9월 25일) 등 지역 區 문화회관에서 다섯 차례 열린다. 올해는 후바크 콰치(단바우, 얼후, 첼나, 기타), 메이슨 에티엔느(드럼), 기욤 마르티노(피아노), 장 펠릭스 마이유 데자르딘(베이스기타), 바네사 마르쿠(바이올린)로 구성된 후바크 콰치, 다니엘 플로레스(호른), 로라 그라시아 구즈만(플루트), 이오리 보돌라스키(오보에), 마르틴 살로나(클라리넷), 비리아 퀘사다(바순)로 구성된 아메리코 콰치, 메리 엘리자베스 보우든(트럼펫), 장 로렌츠(트럼펫), 레이첼 벨뷔키스(호른), 하나 벨라글로벡(트롬본), 그린첸 렌쇼 제임스(튜바)로 구성된 세라프 브라스, 코스트라킨 알렉산더(바이올린), 쿠프소바 다리야(바이올린), 게이다라바 에카타리나(비올라), 아이다 자리폴리나(첼로)로 구성된 소노루스 콰르텟이 실내악 앙상블의 모미를 선사한다.

이밖에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 부산지역 음악 영재들과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 라이징 스타, 부산 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음악인시리즈',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부산지역 내 학교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이명근과 그의 과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0회 정기연주회 ‘운명’



◆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정두환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란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도 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소년일까? 그 기준은 분명 법률이나 조례에 있을 것인데 당혹스러운 것은 법률과 조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거제시와 김포시청 자치법규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 ‘나이가 12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미성년의 젊은이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필자가 용어 정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의가 분명하면 역할이 분명해져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이 예상 가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에 명확한 설명과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1994년 7월 5일 창단된 부산광역시 산하의 교향악 연주단체로, 부산의 중고교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교향악단으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창단되었다. 그동안 초대지휘자 이철수를 비롯하여 윤상운, 이동신, 김범수, 김봉미 지휘자를 거쳐 이명근 지휘

자가 제6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했다. 지난 6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제6대 수석지휘자 이명근 취임을 기념해 ‘운명’이라는 주제로 취임연주회가 열렸다. 이날 프로그램은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과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작품 23’, 이어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다단조’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제인 ‘운명’과 관련지어 연주곡을 설정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날 전반적으로 음악의 흐름은 무난했다. 첫 곡인 ‘운명의 힘’ 서곡에서 힘차게 내뿜는 금관의 강력한 소리는 앞으로 울려 퍼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희망찬을 이야기했다. 빠른 템포와 강력한 금관소리에서 젊은 지휘자와 어린 연주자들의 힘과 의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진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연주에서도 피아노 협연과 오케스트라는 잘 어울렸다. 단원들도 지휘자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이 또한 의욕과 젊음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쉬운 대목은 협연자에 비해 지휘자가 조금 가려진 것이다. 그래도 취임연주인데 지명도가 너무 큰 협연자와 한 무대에서 음악을 만들어가니 관객 대부분은 취임연주보다는 협연자 김정원에 관심을 더 보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수석지휘자가 조금 더

호흡을 맞춘 뒤 함께 연주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연주가 나뉘었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피아니스트에 가려진 지휘자의 모습이 아쉬울 뿐이다.

2부에 있었던 베토벤 ‘교향곡 5번 다단조’의 연주는 성공적이었다. 청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성숙한 연주자들, 지휘자의 요구사항, 음악과 그 외적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연주였다. 독일 음악사학자 파울 베키(Paul Bekker)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을 각 악장마다 ‘몸부림(Struggle)’, ‘희망(Hope)’, ‘의심(Doubt)’, ‘승리(Victory)’라 이야기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연주한 2악장은 젊다, 희망차다, 의욕이 넘친다, 호흡도 빠르다. 이러한 것들이 ‘희망’이다. 연주는 순간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한 순간을 위하여 지휘자와 모든 단원은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노력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어가는 시간의 결과물이 무대인 것이다. 결국 무대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지닌 강점은 단순하게 종결적인 결과물이 아닌 진행형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결과물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결과물로 부산의 교향악 문화를 보다 밝은 면, 적극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기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의 음악 미래는 음악과 관련된 대학교의 학과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만, 부산의 현 실정은 그리 순탄하지가 않다. 교향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교 오케스트라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체계적인 교향곡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과연 몇 개 대학일까? 대부분의 대학은 오케스트라 수업시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학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것도 객원연주자 없이는 힘든 실정이다.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고 그에 따라 전공하는 학생이 더욱 적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대학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럴수록 대학은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 중심의 대학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케스트라를 시대별로 체계적인 공부를 배우는 다른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누군가는 그 역할을 대신하여야 한다. 그곳이 바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다.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실상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대학생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연합오케스트라에 가깝다. 이를 다르게 보면 대학에서 배우기 힘든 교향악의 체계적인 교육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교향악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미래 부산 교향악을 바라볼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 부산 교향악단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렇기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더욱 활성화되길 필자는 기대한다. 이명근 수석지휘자의 두 어깨에 부산 교향악단의 미래를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단원은 전국 또는 세계에서 응시하는 단원을 선발하기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부산 대부분의 오케스트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부산 교향악 운동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하는 제6대 이명근 수석지휘자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른 또 다른 이유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과 부지휘자가 같이 동문수학한 특수 관계이다. 서로에게 힘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이 함께 하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희망의 박수를 보낸다.

‘너’와 ‘나’, 함께 살다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6월 25일~8월 25일,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 <월간미술> 편집장 황석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미술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익히 알려졌듯 동굴바위 벽에 암각한 벽화는 인류가 위협을 주는 동물을 정복한 우월감을 확인하며 향후 보다 많은 수확, 수렵을 기원하는 의미였다. 최초 동물은 섭취의 대상이거나 인류의 나약한 육체적 결핍을 메워주는 노동력이었다. ‘사육’의 대상이 된 이른바 ‘반려동물’은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문자시대 이전에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미술이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을 표현한 미술작품은 그 자체로 인류의 역사가 된다.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은 인류의 인식체계가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그것을 묘사하는 행위를 넘어 어떤 상징을 부여받는 대상으로 변화했다. 타 동물 중에 비해 우월한 두뇌를 소유한 인류는 끊임없이 동물과 구분되기를 원했지만 이와 동시에 동물에 자신의 욕망을 이입하는 모순된 행위를 거듭했다. 개는 충성을, 고양이는 악(惡)을, 올빼미는 지혜를, 뱀은 간사함과 지혜를, 비둘기는 성령을.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물은 저마다 인류가 투영한 의미, 즉 상징으로 이해된다. 대체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인류가 이룩한 사회적 요소, 즉 문화와 종교, 역사 등의 배경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때로는 신성하여 숭배의

대상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터부의 대상이 된다. 인류는 필요에 의해 도구를 고안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갔다. 동물도 마찬가지였다. 익히 알려진대로 늑대를 사냥이나 자신의 보호를 위해 길들였던 인류는 끊임없는 교배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와 기능을 가진 ‘개’를 탄생시킨 것이 그 예다. 이러한 바탕을 고려해 보니 이번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의 키워드와도 같은 ‘반려(伴侶)’라는 단어에 눈길이 간다. ‘짝’이라는 두 단어가 조합된 이 말의 뜻은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짝이나 동무’란다. 지구에 살고 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존재 중에 나와 같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을 만나는 경우도 천문학적 확률일 것이다. 그래서 반려라는 낱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전시를 본다. 얼핏 참여 작가의 ‘반려동물 사육기’로 보일 법한 이 컴팩트한 전시는 앞서 언급한 인류의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와 양상을 꽤 구체적으로 담으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1층과 2층으로 구분된 전시는 1층은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작업실을, 2층은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라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구분되는 듯하다. 먼저 1층 전시장을 걸어보면 표현해야 하는 대상으로

서만 동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에워싼 인류의 태도와 인식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작업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단순히 정확한 묘사의 대상이거나 극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작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작업에 투입되었다. 게다가 역으로 동물의 입장이 되어버린 작가는 가장 즐거운 캣타워를 구축하고 자신의 작업 내부에 뛰노는 고양이도 되었다. 동반자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외침을 철장 속 개의 측은한 눈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인류가 구축한 도시에서 위협받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잔혹한 비극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그렇게 보니 1층 전시장은 끊임없이 동물에 대한 동정과 사랑과 관심을 강조하고 있어 언제나 동물에게 잔인해질 수 있는 인간을 향한 일종의 경고로 읽힌다. 섬뜩한 행위를 ‘서슴없이’ 동물에게 가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섬뜩함을 중화시키는 장치는 2층에 마련됐다. 그 자체로 최상위 가치인 생명. 그 무한 애정의 대상이 2층 전시장 곳곳을 채우고 있다. 젊은 작가의 재기발랄함은 덩이다. 그렇게 보면 이 전시는 인간이 동물에게 보이는 양면성을 맥락화한 스토리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시를 통해 언제든지 잔인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 기저의 습성을 인식하기를 권하고, 반성을 촉구하며, 동물이라는 대상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애정의 대상이자 동등한 생명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전시의 의의는 부산시민회관이 기획한 전시의 수준을 제고(提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찾고 싶다. 그간 부산시민회관 전시는 미학적 성과와 대중성 확보라는, 철도 궤도와 같이 서로 바라보지만 평행선 관계에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했고 대부분 전시기획 전문인력이 배제된 ‘해야만 하는 그저 그런 전시’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관람객의 수준은 날로 높아졌고 그들은 어떤 전시장에서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전시를 볼 권리가 있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전시 기획의 고민과 고려가 대중성과 열추 균형

을 이룬 성과를 냈다고 본다. 기획자의 의지와 능력이 왜 중요한지 보여줬다.

인류는 그동안 지구의 주인임을 자처해왔다. 아마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인간중심의 인식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Starship Troopers)’(1997)를 보면 다른 종과의 대립에서 자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존을 이유로 자행되는 동물에 대한 끔찍한 학살은 ‘멸종’이라는 결과를 부지기수로 낳았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인류는 끊임없이 주변 타 종과 공생을 모색했다. 결코 인류라는 종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어 그렇겠지만 스스로도 동물이라는 유전자의 기능이 발현됐기 때문 아닐까? 최상위 포식자의 생존본능은 ‘자연’이라는 단어 뜻처럼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법칙을 넘어설 수 없다. 그것의 다른 말은 ‘인류애’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오늘도 스스로 ‘집사’가 되어 인류애를 구현하고 있다.



울며 견디며 또 한 걸음 나아가라

부산시립극단 제 65회 정기공연 <테베 삼부작>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연극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정봉석**

소포클레스(BC. 496~406) 비극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테베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한다.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에게 반한 제우스는 황소로 변해 접근하고, 방심한 에우로파가 그의 등에 올라타자 그대로 납치하여 달아난다. 아게노르 왕은 장남 카드모스에게 동생을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하고, 카드모스는 에우로파를 찾아 온 대륙을 추적하였으나 끝내 실패한다. 잘 알다시피 유럽이란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된 카드모스는 신탁에 따라 암소가 머무는 곳에 정착을 한 뒤, 그곳에서 샘물을 지키던 용과 싸워서 죽이고, 그 용의 이빨로부터 5명의 전사를 얻는다. 그들을 스파르토이라 부르는데, 용의 이빨을 땅에 뿌려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이다. 카드모스가 이들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도시국가가 바로 테베이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모스가 죽였던 용이 전쟁과 파괴의 신 아레스의 자식이라는 것. 이로써 카드모스는 아레스의 원한을 풀기 위해 8년간 노예로 산 끝에 겨우 용서를 얻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 난 딸 하르모니아와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카드모스 가문에 내려진 저주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는 4녀(아가우에, 이노, 아우토노에,

세멜레) 1남(폴리도로스)을 낳는다. 카드모스는 말년에 왕위를 아들 폴리도로스가 아닌 외손주 펜테우스(아가우에의 아들)에게 넘겨준다. 한편 제우스는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를 유혹하는데 아내 헤라가 그것을 눈치 챈다. 결국 헤라의 농간으로 세멜레는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타죽게 된다, 이때 세멜레의 뱃속에는 6개월 된 디오니소스가 있었다. 제우스는 태아를 황급히 자신의 허벅지에 심었다가 니사산의 님프에게 맡겨 성장시킨다. 이후 주신이자 연극의 신이 되는 디오니소스는 그를 추종하는 사티로스(염소의 몸을 한 반인반수의 숲의 정령으로 가무와 주색을 즐김)와 여성들을 이끌고 테베로 돌아온다. 이때 테베의 왕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가 자신의 사촌임을 모른 채 테베의 여성들에게 디오니소스 숭배 금지령을 내린다. 그러나 이미 그의 어머니 아가우에와 이모 이노와 아우토노에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광란의 의식에 빠져있었다. 이를 확인하러 펜테우스가 숲에 숨어 엿듣는 것을 짐승으로 착각한 이들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달려들어 사지를 찢고 목을 뜯어내어 죽이고 말았다. 심지어 아가우에는 아들의 목을 지팡이에 꿰고 테베 시내를 활보하다가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불행을 겪는다.

이후 테베의 왕위는 카드모스의 아들 폴리도로스에게 넘어

가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그의 아들 라브다코스가 왕위를 물려받는다. 하지만 라브다코스가 어린 탓에 섭정이 이어지다가 그 역시 아테네와의 전쟁 중에 젊은 나이로 죽고, 왕위는 그의 아들 라이오스가 잇는다. 이때 라이오스의 나이는 겨우 한 살이었다. 그리하여 다시 섭정이 이어지던 와중에 반란이 일어나 왕위를 찬탈 당한다. 피신하여 프리지아(피사)의 왕 펠롭스에게로 몸을 의탁하던 라이오스는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에게 사두마차 모는 법을 가르쳤는데 이때 잘 생긴 크리시포스를 사랑하게 된다. 라이오스는 그를 욕망한 나머지 테베로 데려와서 강간을 범하고, 수치심을 느낀 크리시포스는 자살한다. 이로 인해 펠롭스의 저주를 받은 라이오스는 자식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신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라이오스의 아들인 오이디푸스와,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오카스테, 그의 자식들인 안티고네, 이스메네, 에테오클레스, 폴리네이케스, 그리고 안티고네의 사촌이자 연인인 하이몬으로 이어지는 소포클레스의 <테베 3부작>이 빚어내는 비극의 전사(前史)이다.

<테베 3부작>은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김지용이 소포클레스의 대표작 중에 <오이디푸스 왕>,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를 엮은 것이다. 이는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제1부 <아가멤논>, 제2부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제3부 <자비로운 여신들>-에 필적하는 그리스 비극이지만, <오레스테이아>처럼 애초에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되어 창작된 것은 아니다. <테베 3부작>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안티고네>가 제일 먼저 창작(BC. 441년에 공연)되었으며, 그 다음이 <오이디푸스 왕>으로 BC. 429년에서 420년 사이에, 그리고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가 말년에 창작되어 소포클레스 사후 BC. 401년에 그의 손자에 의해서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각각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작품들을 <테베 3부작>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로 묶어 재구성한 것이다. 이것을 김지용이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새로 선임되면서 첫 공연으로 연출한 바, 공연을 보고난 소감으로는 우선 소포클레스의 대표작들을 하나의

드라마로 완성시켜낸 창의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테베 3부작>을 크게 나누면 ‘오이디푸스 왕’과 그의 딸 ‘안티고네’의 드라마이다. 그런 즉 두 명의 주인공이 전·후반부를 각각 이끌어간다. 일견 아버지와 딸로 이어지는 한 가문의 이야기로서 그 연결 고리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주인공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먼저 <오이디푸스 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비극의 전범(canon)으로 극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야말로 관객에게 연민(eleos)과 공포(phobos)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런 감정의 정화(katharsis)를 행하기 때문이다. 연민은 부당한 불행에 빠진 주인공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정서이고, 공포는 그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정서이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부당한 신탁-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에 저항하여 고향 코린토스를 버리고 테베로 향하지만, 결국엔 신탁이 부여한 말씀대로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음을 인식하고는 스스로 두 눈을 찌러버린다. 이 순간 관객들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오이디푸스를 동정하는 동시에 저항에 따른 비참한 파탄에 공포를 느끼면서 신의 말씀(법)에 순응하는 인간들로 정화되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제9장에서 드라마가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는 개별적인 사건을 묘사하지만 드라마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소포클레스는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의 결말에서 ‘가장 크고 보편적인 진리(idea)인 신’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오이디푸스의 마지막 행적을 숭고하게 묘사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주인공을 영웅(hero)이라고 칭한 것도, 비극의 미학을 비애미가 아니라 숭고미를 추구하는 장르로 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오이디푸스는 비참한 운명에 농락당한 존재가 아니라 신의 섭리를 발견(anagnorisis)하고 숭고한 상태로 전환(peripeteia)하는 존재인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에 반기를 든 이론가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B. 브레히트가 있다. 정화효과에 대하여 소외효과를 주창한 그는 무대

리뷰

가 빚어내는 사건에 무비판적으로 감정을 동화시키지 말고 이성적 판단을 통해 연극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한명의 인물을 들자면 J. 라캉이 있다. 그는 <오이디푸스 왕>이 아닌 <안티고네>의 편에 선다.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두 눈을 찌르고 테베를 떠나 콜로누스의 신성한 숲에 이르러서 신의 품으로 돌아가고 난 뒤, 그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테베의 왕권을 놓고 다투다가 둘 다 죽게 된다. 그리하여 왕위는 오이디푸스의 처남(이오카스테의 동생)인 크레온이 차지하고, 통치자로서의 첫 번째 법을 선포한다. 왕권 다툼에서 졌던 폴리네이케스가 군사를 모아 다시 쳐들어온 것은 반란에 해당되므로, 에테오클레스는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되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는 내버려둔 채 능욕을 당하게 하고, 그 누구라도 여기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안티고네는 왕의 법이 하늘의 법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하늘의 법은 어제 오늘 생길 것이 아니고 불멸하는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주검을 묻어준다. 그렇게 하여 안티고네가 죽자 안티고네를 사랑한 하이몬(크레온의 아들) 또한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결하기에 이른다. 이때 안티고네가 말하는 하늘의 법은 오이디푸스가 순종하여간 신의 말씀(법)이 아니라, 인간 본연에서 우러나오는 윤리 의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라캉은 상징계의 법을 따른 오이디푸스보다 실재계의 윤리를 실천하여간 안티고네야말로 비극의 주인공(hero)이 갖추어야 할 숭고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버지의 이름-법-금지’(nom du pere)를 넘어서는 안티고네와 하이몬의 숭고한 사랑을 계승한 것이다. 종합해 보면 오이디푸스 왕은 고대 비극의 주인공 자질을 지녔고, 안티고네는 현대 비극의 주인공 자질을 지녔다. 그렇다면 김지용이 재구성한 <테베 3부작>은 어떠한가. 그는 이처럼 상치하는 두 주인공을 한 자리에 병치시키기 위해 다른 두 인물에게 더 적극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다. 하나는 크레온이고 또 하나는 이스메네. 크레온에게는 권력에 대한

야망을(이 축에는 제사장 자리를 노리는 세미라미스도 있다), 이스메네에게는 사랑에 대한 욕망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드라마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크레온의 간계로 인해 죽음에 이르고, 오이디푸스 또한 원작과 달리 그들 간의 세력 다툼에 휘말려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다. 이때 오이디푸스의 송고미가 사라진다. 드라마는 구했지만 연극적 진실이 약화되는 순간이다.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주검을 거두다가 죽어가는 안티고네보다는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스메네가 더욱 선명한 인상을 남기고, 안티고네를 따라 아들 하이몬까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자는 크레온이 된 것 같은 결말에 이른다. 그렇게 송고미보다는 비애미를 강화시킴으로써 김지용의 <테베 3부작>은 비극이 아닌 격정극으로 변모하였다. 이같은 결국 김지용의 장르 선택에 대한 하나의 물음이 되었다. 사실 그는 비극의 송고미와 격정극의 비애미를 둘 다 유지하려고 애썼다. 오히려 그는 극이 지나치게 진중해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주(라고 느껴질 만큼) 가벼운 희화적 이완을 시도하였다. 그렇게 비극과 격정극의 경계선에서 무거운 무게중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관객들은 가까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주요 인물들의 죽음의 순간에서 김지용의 발이 한쪽으로만 기울었던 것은 의문이다. 이오카스테와 오이디푸스 때도 그랬고 안티고네와 하이몬 때도 그랬다. 그는 왜 비장미보다 비애미를 선택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비애미를 선택한 결과 기울어진 무게감을 어떤 말로 보충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 느낌은 주요 배역들이 아래의 에필로그를 최종적으로 낭송하던 순간의 공허함에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다음 작품에서 이같은 물음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울어라 운명이여

견뎌라 인간들아

차가운 죽음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명의 시간이 오리니

그 때 또 한 걸음 나아가라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인상주의 거장들 빛의 화가들展

일 시 6월 8일(토)-9월 29일(일) 전시실
입장료 입장료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7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매까지 30% 할인,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문화로데이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170



모네, 고흐, 고갱, 마네, 르누아르, 드가, 세잔 등 인상주의 거장 7명의 320여점의 작품들이 초대형 파노라마 캔버스에 영상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전 '빛의 화가들'.

인상주의의 예술적 의의와 가치 및 주요 작품들을 비롯해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영상을 통해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등 6개의 테마별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 관람시간/오전 10:30~오후 7:30(오후 6:30 입장 마감, 월요일 휴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일 시 7월 2일(화)-9월 8일(일) 오전 11:00(매주 월요일, 무대점검기간 8월 1일-5일 휴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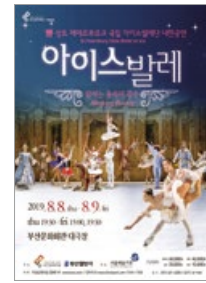


평화로운 지구에 어느 날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안전원자와 친구들은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 발생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유형별 위기 순간에 대한 대처 요령을 노래와 춤을 통해 쉽게 배워볼 수 있는 '도와줘요 안전맨'은 2015년 국민안전 안전문화창작뮤지컬 우수상 수상, 2017년 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일 시 8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9일 금요일 오후 3:00,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6만원, R석 4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폭염 속의 한여름을 시원하고 화려하게 수놓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온 가족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공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정통 클래식 발레와 피겨스케이팅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은반 위에서의 이색적이고도 화려한 환상 동화를 선사한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은 1998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지난 20여 년 간 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여름 시즌 가장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아이টে็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1218회 MBC 목요일음악회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공연 Friends De Comma +25

일 시 8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바이올리니스트 이운지를 대표로 바이올리니스트 이희진, 비올리니스트 이현원, 첼리스트 장여정으로 구성된 콰르텟 드 콤마의 무대로 마련되는 제1218회 MBC 목요일음악회.

콰르텟 드 콤마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드라마 OST, 대중가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레퍼토리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1부 콰르텟 드 콤마의 현악양상블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그들의 동료들로 구성된 25명의 Friends De Comma +25가 출연,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바리톤 김주택 리사이틀 이탈리아나

일 시 8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문의 (주)아트엔아티스트 공연기획팀 02-3443-9482-3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를 사로잡은 바리톤 김주택의 첫 부산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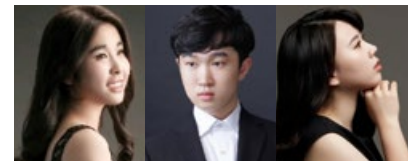
지난 2009년 이탈리아 예지 페르콜레지 극장에서 '세비아의 이발사'의 피가로 역으로 데뷔한 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탈리아 현지에서 정상급 오페라 가수의 반열에 올라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인 김주택은 올해 1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독주회에서 티켓 오픈 5분만에 전석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성악계의 아이돌'임을 입증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데뷔 1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발매한 첫 솔로 앨범의 신곡들로 꾸민다.

- 피아노/이영민 ● 기타/박중호

3인 3색 조인트 리사이틀

일 시 8월 10일 토요일 오후 1: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최미정 010-6401-8846



피아니스트 최미정의 제자로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이예지, 양건웅, 중앙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이정민 등 개성 강한 3인의 피아니스트가 펼치는 3인 3색 조인트 리사이틀.

바로크에서부터 고전, 낭만을 아우르는 전시대에 걸친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이번 무대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뿜어내는 시원한 에너지로 한 여름밤 열기를 식혀줄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2019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이럴때 이런음악

일 시 8월 11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훈엔터테인먼트 02-332-5545,
www.hoon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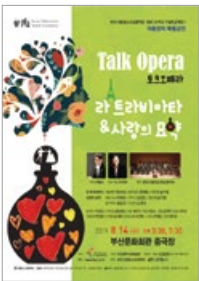


지난 2003년부터 진행 해온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의 원 조 공연으로, 지금까지 클래식 공연에서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꾸며지는 '이럴때 이런음악'.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한 여름밤의 사계'라는 부제로 쇼팽 '즉흥환상곡', 슈베르트 '마왕',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오펜바흐 '자클린의 눈물', 차이콥스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계절별로 들어 보면 좋은 곡들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정현 ● 바이올린/변서희
- 비올라/김선라 ● 첼로/박희경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 25주년 기념
프로젝트 특별한 여름방학 선물 토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사랑의 묘약'

일 시 8월 14일 수요일 오후 3:30,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창단 25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토크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사랑의 묘약'.

오페라에 정통한 신임 수석지휘자 이명근과 최연소 국립 오페라단

상근 연출자로 활동한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가 의 기투합해 제작한 이번 무대는 부산예술인에게 폭 넓은 기회와 다양한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재)부산문화회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예술인 스타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소프라노 이수진과 남상임, 노연수, 바리톤 윤오건 등 4명의 지역 성악가와 국내 최정상 테너 이재욱, 바리톤 송기창이 무대에 함께 선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일 시 8월 14일(수)-30일(금)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초·중·고·대학생 본인 5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www.bscc.or.kr



옹휘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차세대 솔리스트 연주자들로 구성된 노부스 콰르텟의 무대.

프로그램

시벨리우스/안단테 페스티보
드보르작/현악 4중주 '아메리카'
슈베르트/현악 4중주 '즉음과 소녀'

8월 15일(목) 오후 5:00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 4중주 With 이윤수

세계적인 사중주단인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4중주와 피아니스트 이윤수가 실내악의 본고장인 독일 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현악 4중주 제12번 다단조
모차르트/현악 4중주 '사냥'
드보르작/피아노 5중주 작품 81

8월 16일(금) 오후 7:30 원더첼로

인제대학교 교수인 양욱진을 중심으로 차세대 첼리스트들로 결성된 원더첼로의 무대.

프로그램

엘가/님로드(Nimrod)
포퍼/폴로네이즈 협주곡 작품 14
피아졸라/신비한 푸가(Fuga y Misterio) 등

8월 20일(화) 오후 7:30 김봄소리 바이올린 리사이틀

2013년 뮌헨 ARD 콩쿠르 우승으로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로 우뚝 선 김봄소리 리사이틀.
프로그램
슈만/바이올린 소나타 가단조 작품 105
시벨리우스/6개의 소품 작품 79
프란츠 왁스만/카르멘 환타지 등

8월 22일(목) 오후 7:30 디 콰트로 4중주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이자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울산시립교향악단 차석 바이올리니스트 장은아,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인 비올리스트 조진영, 첼리스트 정서은으로 구성된 디 콰트로 4중주단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현악 4중주 제21번 K.575
슈베르트/즉음과 소녀

8월 24일(토) 오후 5:00 부산지역 대학 앙상블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부산, 경남지역 5개 대학의 현악 앙상블팀이 출연하는 대학연합 무대.

- 지도교수/양욱진(인제대), 윤상운(동의대), 이명진(동아대), 경성대(임병원), 김진연(인제대)

8월 26일(월) 오후 7:30 뮤즈 앙상블

임병원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정, 비올리스트 최영식, 첼리스트 이동열, 베이스리스트 윤민우, 피아니스트 이진성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즈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잘츠부르크 심포니 제2번
베토벤/세레나데 사장조 작품 8
슈베르트/송어
슈베르트/즉음과 소녀

8월 27일(화) 오후 7:30 아르스 현악 4중주

신라대학교 교수인 리더 조현미를 주축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 비올리스트 강수이, 서성은으로 구성된 아르스 현악 4중주의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으로 있는 장재혁의 협연으로 수준 높은 현악앙상블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브람스/현악 6중주 제1번 작품 18
모차르트/클라리넷 5중주 가장조 K. 581

8월 29일(목) 오후 7:30 비르투오조 앙상블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김도경, 우소라, 비올리스트 김은진, 홍영선, 첼리스트 이일세, 피아니스트 박지은, 김미현으로 구성된 비르투오조 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슈만/피아노 4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7
슈만/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8월 30일(금) 오후 7:30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인 이은옥을 주축으로 박은경, 양은정, 성현이, 신효은, 서은아, 이현지, 김상미, 이은솔, 이성호, 천재현, 이윤하, 서성은, 김근혜, 윤민우, 김미현 등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의 무대.

프로그램

드뷔시/피아노트리오 사장조
헨델-할보르센/파사칼리아
엘가/세레나데 작품 20 등

부산진청소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8월 15일 목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류지원 010-3864-9889



(사)디아코니아부산 소속으로, 부산시내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는 부산진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지난 2016년 5월 창단된 부산진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 오후 연습을 통해 음악적 기량을 쌓아오고 있으며,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지역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통해 이웃과 함께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궁초등학교 합창단(지휘자 배영신) 특별출연으로,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을 비롯해 클래식 명곡과 영화음악 등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류지원 ● 지휘/백승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관현악단 제24회 정기연주회 Invitation 'From the New World'

일 시 8월 18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단장 이민재 010-2204-0830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관현악단의 24번째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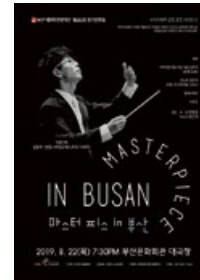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관현악단은 지난 1993년 창단 이후 환우와 지역민을 위한 음악사랑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 드보르작/슬라브댄스 작품 72 제8번
- 생상/서주와 론도, 카리치오스
-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등
- 지휘/정운봉
- 협연/김소영(바이올린), 최종현(클라리넷)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 공연시리즈 1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마스터 피스 in 부산

일 시 8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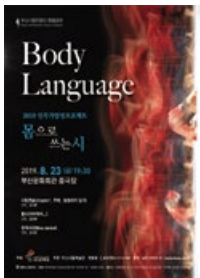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을 위한 특별한 무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현재 월드뮤직오케스트라 10 대표 겸 지휘자, 한음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는 김종욱은 이번 무대에서 '마스터 피스 in 부산'이라는 주제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지난 35년간 여정 속에서 앞으로의 음악적 방향을 찾아보고 새로운 걸작을 품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협연/한영길(대금), 정선희(판소리)
 ● 객원출연/이원기(클라리넷), 강인호(오보에), 김성식(피콜로), 이기진·정혜민(이상 콘트라베이스)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일 시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해 직접 빛어낸 단원들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2019년 무대.

작품

사람연습 chapter 1.

무례·침범하지 않기(안무/김시현, 춤/김시현, 조현배) 틀IV(어떠하라...) (안무/정진희, 춤/정진희, 김수잔) 청색시대(Blue period)(안무/김미란, 춤/김미란, 강모세, 안주희, 최의옥, 장영진, 박미나, 류가빈, 하현정, 이호준, 김미란, 특별출연/첼리스트 김성덕)

한음챔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한음챔버오케스트라 010-9566-0368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전공과 무관하게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음챔버오케스트라 두 번째 정기연주회.

한음챔버오케스트라는 지난 2017년 1월 작은 리사이틀 시작으로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 지휘/한행래
- 협연/이지은(플루트), 성원준(바이올린), 김나영(소프라노), 조윤환(테너), 양재원(베이스바리톤)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V

일 시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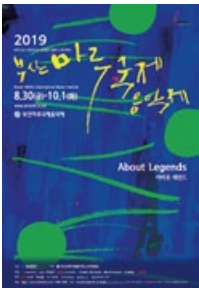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의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마티네 콘서트는 올해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설로 오페라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TBN 부산교통방송 손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유니티드 필하모닉 음악감독, 베타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로 있는 김봉미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박은주, 테너 김성진, 바리톤 안세범의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구노의 대표적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파우스트'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부산문화회관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어바웃 레전드 About Legends

일 시 8월 30일(금)-10월 1일(화) 부산문화회관, 區 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지역 각 학교
입장료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8월 31일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공연은 무료)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급의 클래식 음악 축제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8월 30일(금) 오후 7:30 대극장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아리랑 고적대의 흥겨운 개막 퍼포먼스에 이어 지휘자 바락 탈이

이끄는 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출신의 떠오르는 신예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통 보로우의 연주로 마련되는 2019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콘서트.

프로그램

베토벤/코리올란' 서곡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작품 73 '황제'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 지휘/바락 탈
- 연주/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 협연/통 보로우(피아노)
- 개막 퍼포먼스/아리랑 고적대

8월 31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5:00 대극장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강서청소년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부산지역 22개 학교 및 단체가 출연하는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특별한 무대.

- 특별출연/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9월 6(금) 오후 7:30 대극장 메인콘서트 VI

지휘자 렌창 푸(Renchang Fu)가 이끄는 사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라이징스타로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팔로마 소의 무대로 마련되는 메인콘서트 여섯 번째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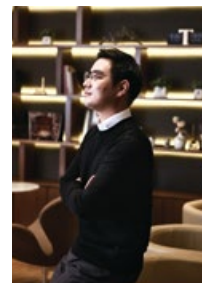
프로그램

시벨리우스/교향시 '핀란드어' 작품 26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시벨리우스/교향곡 제2번 라장조 작품 43

- 지휘/렌창 푸
- 연주/사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팔로마 소(바이올린)

9월 7일(토) 오후 5:00 대극장 메인콘서트 VII



수석지휘자 최수열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마련되는 2019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마지막 메인콘서트 무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인민 예술가이자 카자흐 국립예술대학교의 총장인 협연자 아이만

무싸하자예바의 협연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차이콥스키, 린스카-코르사코프의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차이콥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린스카-코르사코프/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 지휘/최수열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협연/아이만 무싸하자예바(바이올린)

제10회 웰니스 클래식
불멸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일 시 8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웰니스병원이 매년 환우와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제10회 웰니스 클래식'.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폭넓은 활동을 펼쳐 오며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오고 있는 (사)부산네오파모닉 오케스트라(지휘/홍성택)의 연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악장, 경남솔로이스츠 리더, 부산 클래식뮤직 소사이어티 음악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이 베토벤 '바이올린협주곡 작품 61'를 들려준다.

- 지휘/홍성택
- 바이올린/임재홍, 김유리
- 첼로/정지은
- 소프라노/김아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일 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대를 초월한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아름다운 앙상블 연주와 환상적인 샌드애니메이션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뮤지컬 배우의 낭독과 동서양 악기의 앙상블 연주, 그리고 샌드애니메이션이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순수한 추억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진다.

- 낭독배우/배혜선, 김기창
- 샌드애니메이션 제작/박진수
- 연주/동준모(음악감독, 클라리넷), 이재은(첼로), 김미령(바이올린), 이정엽(기타), 채지혜(피아노), 고명진(양금-타악), 이태경(해금), 진혜린(하모니카)

부산 의치대 OB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의치대 OB 오케스트라 010-9232-0906



지난 1973년 창단하여 올해로 47번째 정기연주회를 가진 부산 의치대 관현악단의 졸업생들이 2016년 창단한 부산 의치대 OB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클래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에는 환자를 치유하는 의료인으로, 밤에는 아마추어 음악인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이번 무대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잠시 잊고자 하는 바램으로 스브리도프의 '눈보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1악장, 하이든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 지휘/조희영
- 악장/이혜진
- 협연/이지은(피아노)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스페이스 움 음악회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스페이스 움
입장료 전석 2만원(23일 공연은 전석 1만원)
문의 스페이스 움 557-3369, www.spaceum.kr

2일(제351회) 낭독음악극 '푸른 하늘 은하수'
 소프라노 박나리, 메조소프라노 전하라, 테너 이창원, 바리톤 여지훈이 들려주는 낭독음악극.
 ● 극작 및 연출/이창원 ● 편곡/권태우
 ● 피아노/이영희, 홍선화
 ● 샌드아트스트/노선이 ● 저대/안창섭

9일(제352회) (사)국악아카데미 나빌레라 열두 번째 이야기 사랑방
 바이올리니스트 정희수, 첼리스트 김연경, 피아니스트 이안나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17일(제353회) 미스김의 프로포즈 다섯 번째
 미스김 김은정이 프로포즈한 문화예술인들의 솔직한 토크와 연주로 진행되는 아날로그 감성의 오프라인 음악방송 '미스김의 프로포즈'.
 ● 출연/이성규(하모니카)
 ● 특별출연/고충진(클래식기타)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7일(694회) 듀오콘서트 '파리지앵의 삶'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으로, 프랑스에서 음악수업을 마친 소프라노 이연진과 테너 강도호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소프라노 이연진은 독일 쾰른국립음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도블, 파리음악원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2년 수료하고 베르사유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후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테너 강도호는 프랑스 세르지 푸투와즈 국립음악원 디플로마과정과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국립극장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3일(제354회) 김중완, 손한묵 피아노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The Letters of Water'
 부산의 젊은 편곡팀 'Arrangers'로 활동중인 작곡가 김중완, 손한묵이 새롭게 발매한 피아노 앨범 '물', 'Piano Letters'의 쇼케이스 무대.
 직접 녹음하고 촬영한 자연의 소리와 영상, 그리고 향과 함께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지는 오감만족 음악회로 꾸며진다.

● 연주/김중완, 구하민
30일(제355회)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V '윤술 현악사중주'
 문화유목민 정두환과 현악사중주단 '윤술'이 함께하는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다섯 번째 무대.
프로그램
 바흐/칸타타 BWV 156 '아리오소'
 하이든/현악사중주 작품 64 제5번 '종달새' 등 수곡

● 연주/홍기정, 이명현(바이올린), 박소정(비올라), 강경아(첼로)



14일(695회) 부산가야금거문고양상블 '부산의 여름'
 부산대학교에서 가야금과 거문고를 전공한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가야금거문고양상블의 무대로, 창작곡을 비롯해 우리민요를 가야금, 거문고양상블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을 들려준다.
 ● 거문고/김현경(대표), 김소량, 서지윤, 이승은
 ● 가야금/최경철, 윤혜란, 고명진, 김에림, 김예진



21일(696회) 김지원 바이올린 독주회
 통영국제음악제 상주연주단체이자 현대음악 전문연주단체인 (사)팀프 앙상블(Ensemble T IMF)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원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 중 도독,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전문연주자과정), 윈스터 국립음대(석사)를 졸업한 김지원은 세계적인 현대음악단체인 앙상블 모데른이 주관하

2019 영화의전당 8월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시즌 2 클래식, 고전을 넘어 미래로 향하다

일 시 8월 6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커피 무료제공)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영화음악감독 푸디토리움과 함께하는 영화와 영화음악 이야기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두 번째 시즌.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김정범)이 진행하는 시네마 브런치 8월 무대에서는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디 아워스', '바벨', '그래비티',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컨택트', '어느날' 등 친숙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현대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 연주/김정범(피아노), 이소란(바이올린), 이신규(비올라), 강찬욱(첼로)

는 아카데미(IEMA)의 현대음악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있으며, 유학시절부터 유럽각지를 오가며 20세기 초반의 현대곡부터 전자음악을 아우르는 폭넓은 현대음악을 소개하고 연주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과 더불어 루트 슬라브스키, 하인리히 이그나츠 프란츠 폰 비버, 레오슈 야나체크 등 현대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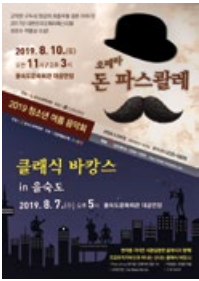
28일(697회) 앙상블 아트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아트 VS 아트'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8중주단으로, 지난 2016년 3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풍성한 울림을 선사하고 있는 앙상블 아트의 무대.

프로그램
 푸치니/현악4중주 '국화'
 드보르작/현악4중주 제12번 '아메리칸'
 슈베르트/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
 ● 바이올린/고은비, 손은혜, 정아람, 탁서연
 ● 비올라/윤솔샘 ● 첼로/김기량, 박예리나

기타공연장

2019 청소년 여름 음악회

일 시 8월 7일 수요일 오후 5:00, 1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7일(수) 오후 5:00 클래식바탕스 in 을숙도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의 전속악단인 프로뮤지카부산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국내외 가곡, 뮤지컬 넘버, 오페라 아리아, 탕고 등 다양한 곡을 기악 앙상블 연주

로 들려주는 시원한 클래식 바탕스 무대.
● 진행/박시현

10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오페라 '돈 파스칼레'

2017년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경성오페라단의 오페라 '돈 파스칼레'.

2019 부산기타페스티벌

일 시 8월 11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현장판매)
문 의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010-5489-2913



매년 여름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기타의 향연 2019 부산기타페스티벌. 전국의 유명 기타리스트들과 연주단체를 초청해 마련하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기타 페스티벌로, 올해는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지휘/김현아, 협연/김경태)과 기타리스트 배광수, 양승만, 이노영, 박종호로 결성된 GRE 기타과라넷, 우리 시대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젊은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출연, 클래식기타의 매력을 선사한다.

후브라스콰이어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8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방학맞이 학생 50% 할인)
문 의 후브라스콰이어 010-8733-7438



지난 2011년 부산, 경남의 우수한 관악연주자들로 창단된 후진지한 음악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금관앙상블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후브라스콰이어의 무대의 무대.

대구시립교향악단, 부산트롬본앙상블 단원 조종욱, 중국 홍콩 금자형 국제공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박주연의 협연으로, 금관앙상블의 매력을 전해준다.

- 지휘/김기울(음악감독 및 수석지휘자)
● 해설/김윤선
● 트롬본/조종욱 ● 피아노/박주연

금정문화회관 여름방학기획시리즈 II CLASSIC이 있는 뮤지컬 영국여행

일 시 8월 16일 금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6세 이상 관람가능)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과 예술을 한번에 잡은 스토리가 있는 클래식 뮤지컬 '영국여행'. 만화가 이원복 만화가 '만나라 이웃나라-영국편'에 기반하여 탄생한 클래식 콘서트로, 영국의 역사와 도시, 문화가 고스란히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고,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이 앙상블의 라이브 합주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영국을 눈으로 한 번 느끼고 귀로 두 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영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클래식과도 더욱 친숙해질 수 있다.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드림이' 헤븐스타트와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일 시 8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수익금 전액 기부)
문 의 김재영 010-6296-0885



아라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아토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로, 창단 5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하는 자선음악회. 음악감독 겸 지휘자인 김재영이 지휘하고 아라청소년 오케스트라, 아토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의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성악트리오 Artisti 창단연주회

일 시 8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Artisti 010-2970-2938



이태리 Frosinone 국립음악원, Rome, A.I.Art Academia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창원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테너 서치환, 이태리 L. Refice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부산예술고등학교, 해군사관학교에 출강중인 바리톤 김기환, 이태리 Frosinone 국립음악원, Rome Academia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발성코치로 있는 바리톤 김민형 등 젊은 유학파 성악가들로 구성된 성악트리오 Artisti의 창단 무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희로애락'을 주제로 클래식에서부터 가요, 팝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브릴란떼 오페라 콘서트 한여름밤의 시원한 음악회

일 시 8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문의 브릴란떼 오페라먼트 508-0459, 010-9345-0459



지난 2003년 지역의 젊은 성악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브릴란떼 오페라먼트의 17번째 정기 오페라 콘서트. 그동안 오페라 콘서트, 찾아가는 오페라, 소극장 오페라 등을 통해 오페라의 저변 확대 및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브릴란떼 오페라먼트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들로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준다.

- 소프라노/김미정, 서유희, 류지은, 김소윤
- 테너/홍정표
- 바리톤/최대우, 김종권, 유웅준
- 피아노/이수진, 김보혜

부산신포니에타 제96회 정기연주회

일 시 8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부산신포니에타 010-8519-0448



지난 1986년 창단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의 96번째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영희를 음악감독으로, 그동안 95차례 정기연주회와 국내외 초청연주회를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이있는 해석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지휘자 황미나의 지휘, 국민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현진의 협연으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2019 부산거문고악회 특별기획 콘서트 시리즈 거문고 일곱마당 II 김현경 거문고 독주회 Refined-여름풍류 II

일 시 8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거문고악회 010-4202-3003



국악기인 거문고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부산거문고악회가 마련한 2019 특별기획콘서트시리즈 '거문고 일곱 마당' 두 번째 무대 '김현경 독주회'.

부산가야금거문고양상블 대표이자 부산거문고악회 총무, 처용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있는 김현경은 이번 무대에서 거문고산조에서부터 창작곡까지 거문고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김현경은 제5회 전국국악대전 우수상, 제23회 부산전국국악경연대회 차상, 제15회 포항국악대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프라노 류하람 독창회

일 시 8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류하람 010-5554-1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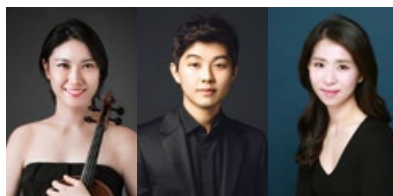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쾰른 국립음대에 재학중인 소프라노 류하람 독창회. 류하람은 한국음악교육협회 콩쿠르 1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2019년 'La Primavera' Meister Kurs, 독일 Bonn Opera Haus 19/20년도 Opera 'Fidelio' Extra Choir로 참여한다.

- 소프라노/박미경
- 오보에/류재환
- 피아노/신지혜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 제8회 짜장콘서트

일 시 8월 29일 목요일 오후 7:00(오후 6시부터 짜장면 먹기) 음악풍경 연습실
입장료 참석비 1만원(사전 예약)
문의 음악풍경 987-5005



콘서트가 열리기 한시간 전인 6시 근처 중국집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짜장면을 시식하고 공연 뒷풀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는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의 이색 콘서트 '짜장콘서트'. 지역의 음악가들을 초청, 하우스콘서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유리, 첼리스트 이경성, 피아니스트 정은희가 출연, 가요 '낭만에 대하여', '나그네 설움', '아빠의 청춘', '빨간구두 아가씨' 등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를 피아노3중주로 들려준다.

바리톤 시영민 독창회

일 시 9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시영민 010-4182-0176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서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바리톤 시영민 독창회.

시영민은 해외파견콩쿠르 1위, 부일성악콩쿠르 2위, 대구성악콩쿠르 우수상, BMIMF 콘체르토크림페디션 3위, 중국닝보 성악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포레, 스트라우스, 바그너, 베르디 등 유명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기타공연장

연극 | Play

코믹극 보잉보잉

일 시 5월 16일(목)-8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01년 초연 후 현재 400만 관객을 돌파한 국가대표 코믹극 '보잉보잉'. 매력적인 바람둥이 조성기는 3명의 스튜디오스와 동시에 연애중이다. 어느날 조성기의 시골친구 손성기가 성기를 찾아오고 하필 그날 비행일정이 꼬이면서 애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데... 손진남 손성이와 도ومی 옥희가 조성기를 도와서 고군분투하지만 과연 이들은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심리스릴러 연극 새빨간 거짓말

일 시 6월 6일(목)-9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등골 오싹한 짜릿한 공포로 오감을 자극시켜 줄 스릴러연극 '새빨간 거짓말'. 직업,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주인공 이유리는 어느날 낱카로온 흥기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고 범인 색출에 나서면서 주변인 모두가 그녀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연극 '새빨간 거짓말'은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불가능한 전개 속에 설렘없이 조여오는 긴장감으로 관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공포감을 선사한다.
출연/왕정현, 임승헌, 염지호, 고동우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일 시 5월 31일(금)-9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예매시 평일 1만9천원, 주말 2만 2천원, 학생 50% 할인)
문의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지난 1999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 600만명을 돌파한 국민연극 '라이어 1탄'. 평범한 택시기사 존 스미스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2명의 부인 메리와 바바라를 두고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는 내용으로, 기막힌 거짓말을 통해 속고 속이는 인간사를 통쾌하게 풀어냈다. 특히 빠른 전개와 더불어 어디로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속에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단순한 코미디극을 뛰어넘는 흥미진진함을 선사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신나는 타악 놀이극 '드림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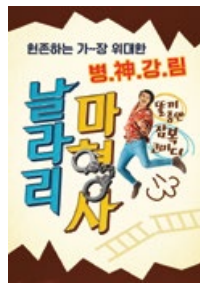
일 시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전석 1만원(단체할인 5천원)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신나는 어린이 타악 놀이극 '드림스케치'. 오염된 개천에서 살고 있는 맥주캔, 오리인형, 휴대폰, 유기견 등은 자신들이 버려지기 전 인간들에게 쓸모 있던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달님에게 소원을 빌지만 그때 개천의 우두머리인 너구리가 등장하면서 모두들 뿔뿔이 흩어진다. 어느날 천재 타악 연주자를 만나 모두 함께 타악 연주를 배우면서 다시 깨끗한 개천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는데... '드림스케치'는 신나는 타악 연주와 음악으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한다.

연극 '날라리 마형사'-부산

일 시 6월 6일(목)-8월 18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상에서 제일 예리한 형사의 코믹 잠입수사극 '날라리 마형사'. 좌천될 위기에 놓인 마형사는 연출가 멧가진 살인사건에 의문을 가지고 '극단 연병임(연기를 병적으로 사랑하는 모임)'에 막내단원으로 잠입에 성공한다. 마형사는 허당미를 발산하며 연출가 멧가진과 여러 사건으로 얽히고 설킨 단원들을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날라리 마형사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뮤지컬, 재즈에 빠지다 '이지훈 x 전수경'

일 시 8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전석 4만원(단체 10인이상 3만원)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뮤지컬 갈라무대 '뮤지컬, 재즈에 빠지다'. 이제는 가수에서 뮤지컬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한 이지훈과 한국의 1세대 뮤지컬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전수경이 재즈와 뮤지컬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당당하고 씩씩한 태도와 특유의 시원스런 웃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는 뮤지컬 배우 이지훈과 전수경은 뮤지컬 외에도 드라마, 영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금정문화회관 여름방학기획시리즈 III
미디어 오브제쇼 ‘거인의 책상’**

일 시 8월 23일 금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온가족을 위해 마련한 여름방학 기획시리즈 마지막 무대 ‘거인의 책상’.
미디어 영상장비를 이용, 일상의 작은 책상을 거대한 거인의 책상으로 바꾸는 미디어 오브제쇼인 ‘거인의 책상’은 거인의 손과 배아가 만들어내는 유쾌한 상상력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으며 지난 2012년 서울어린이연극상에서는 최우수작품상, 연기상, 최고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용 | Dance

**국악무용극 ‘천생연분’ 시즌 II
붉은 머리 학 이야기**

일 시 7월 2일(화)-8월 31일(토) 평일 오후 7:30, 토·공휴일 오후 3:00(일·월요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전통 혼례식을 통해 조선 시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시즌 1에 이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즌 2에서는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판타지 로맨스를 펼친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성악단(예술감독 유경조), 무용단(예술감독 정신혜) 단원 50여명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비밀을 품고 있는 무녀 ‘단정’과 화랑을 꿈꾸는 낭도 ‘흠모’의 사랑 이야기가 전통음악과 동래학춤, 창작춤, 주제곡 ‘연지연가’ 등 악가·무가 한데 어우러져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예술을 보여준다.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뮤지컬 엔 더 넘버
‘Musical 3Queens’**

일 시 8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전석 5만원(단체 10인 이상 4만원)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뮤지컬계 원조 디바 최정원, MBC 복면가왕 ‘나가 가라 하와이’의 ‘홍지민’, 파워풀한 가창력과 카리스마의 민고 보는 배우 리사 등 뮤지컬계 가장 화려한 디바 3인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Musical 3Queens’.

관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뮤지컬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유명 작품들의 주요 넘버만을 골라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최정원, 홍지민, 리사, 유영지, 장소연, 아라현

**금정문화회관 여름방학기획시리즈 I
와이즈발레단 동화발레 춤추는 팬더**

일 시 8월 9일 금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가능)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 여름방학을 맞아 온가족을 위해 마련한 방학을 여름방학 기획시리즈 첫 번째 무대 ‘춤추는 팬더’.
지난 2016년 초연된 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와이즈발레단의 동화발레 ‘춤추는 팬더’는 서커스단을 배경으로 서커스단의 인기스타인 팬더가 동물친구들과 함께 엄마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야기로 따뜻한 가족 사랑을 그리고 있다.
특히 그림책을 보는 듯한 무대연출과 발레, 비보잉, 마임 등 풍성한 볼거리로 관객들에게 재미과 감동을 선사한다.

**뮤지컬 ‘스쿨 오브 락’
월드투어-부산**

일 시 9월 1일(일)-1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13일 오후 6:00, 15일 오후 2:00, 월요일 공연 없음) 드림씨어터
입장료 VIP 16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의 클럽서비스 1577-3363



잭 블랙 주연의 동명의 히트 음악영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스쿨 오브 락’ 월드투어 부산공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탄생시킨 뮤지컬의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최신 히트작으로, 브로

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뒤흔든 감동 에너지를 최초 월드투어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주인공 ‘듀이’의 가슴 뛰는 스토리가 영화를 뛰어넘어 폭발하는 유쾌한 에너지를 선사한다.

**2019 두레raum 명품 클래식 시리즈 2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일 시 8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17일 토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VIP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문의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클래식 발레 최고의 걸작으로 사랑받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사악한 마법사 로트바르트의 저주에 걸려 낮에는 백조가 됐다가 밤에는 사람이 되는 오데트 공주와 지그프리트 왕자의 사랑을 다룬 이 작품은 초연 후 140여년간 수 많은 버전으로 변주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러시아 발레의 살아있는 전설,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으로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로트바르트를 지그프리트 왕자의 무의식을 좌우하는 천재적인 악마로 묘사하면서 그 어느 ‘백조의 호수’보다 치열한 긴장감과 뛰어난 깊이 있는 연기력을 선보인다.

기타공연장

영화 | Movie

서머 스페셜 2019

일 시 7월 16일(화)-8월 15일(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매주 월요일 상영없음)
입장료 일반 6천원, 경로·청소년 4천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www.dureraum.org



(재)영화의전당이 매년 영화 애호가들을 위해 마련하는 여름 기획전 '서머 스페셜 2019'. 지난 3월 사망한 누벨 바그의 대모 아녜스 바르다와 그의 남편이자 예술적 동반자 자크 드미의 작품을 소개하는 '아녜스 바르다X자크 드미', 미술가들의 고난과 사랑을 그린 '미술 혹은 미술가들', 자유분방한 집시의 삶과 영혼을 볼 수 있는 '집시의 노래' 등 3가지 섹션으로 꾸며진다.

행사 | Event

스페이스 음 8월 아카데미 가장 영화음악 감독 시리즈문학유목민 정두환이 들려주는 영화음악감독의 음악세계

일 시 8월 1일(목)-9월 5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음
입장료 수강료 10만원(선착순 30명)
문 의 스페이스 음 557-3369, www.spaceum.kr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영화, 영화음악을 통해 영화음악감독의 음악세계를 알아보는 문학유목민 정두환의 '가장 영화음악감독 시리즈'.

8월 1일 시네마 천국-엔니오 모리꼬네

8월 8일 슈퍼맨-존 윌리엄스

8월 22일 글레디에이터-한스 짐머

8월 29일 가을의 전설-제임스 오너

9월 5일 모던타임즈-데이비드 라크신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사랑과 영혼'

일 시 8월 20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15세 관람가)
문 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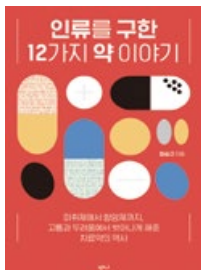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 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2019년 8월 상영회.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에서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8월에는 1990년 개봉 당시 350만 관객을 동원하여 당시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던 멜로영화 '사랑과 영혼'(미국, 1990년 작, 상영시간 127분, 15세 관람가)을 상영한다.

8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 10:00 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5천원, 학생 1만원(1회 수강료)
문 의 시네바움 010-2774-3455

1일(목), 8일(목), 15일(목), 22일(목), 29일(목) 오전 10:00
무료아카데미 '지혜와 성찰의 길. 論語, 깊게 읽기'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5일(월) 오후 7:00 약의 기원을 찾아서(1) 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강사/정승규(약사, 의학 연구가)

6일(화) 오후 7:00 과학혁명과 근대과학의 탄생
강사/김유신(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콘서트 | Concert

2019 슈퍼밴드 콘서트-부산

일 시 8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7:30 KBS부산홀
입장료 VIP석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문 의 (주)WSM 1566-5490

정은지 콘서트 'YEOREUM.I' -부산

일 시 8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전석 9만9천원
문 의 (주)WSM 1566-5490

2019 박정현 콘서트 '만나러 가는 길'-부산

일 시 8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18일 일요일 오후 5: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A석 7만7천원
문 의 장군엔터테인먼트 1588-6956

12일(월) 오후 7:00 일기로 만나는 비트퀘슈타인(2)

강사/하상필(인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3일(화) 오후 7:00 나쁜 남자. 아인슈타인

강사/조승현(웹진 인저리타임 대표,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9일(월) 오후 7:00 공감의 윤리, 공정의 윤리, 책임의 윤리

강사/문성원(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20일(화) 동양의 미학(21)

서민예술의 정수_유혹하는 우키요에(부세회, 浮世繪)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가톨릭대학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26일(월) 오후 7:00 메리 셸리와 '프랑켄슈타인'의 탄생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27일(화) 셰익스피어의 문체극 읽기 II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의 문체적 성(性)과 bed-trick

강사/김혜룡(영문학박사, 전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15만원(3개월)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에서 'FM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김옥균(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입문자를 위한 해설감상회.

프로그램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홀스트 모음곡 '혹성',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 레스피기 '로마의 분수, 비제 모음곡 '아를르의 여인' 차이콥스키 '바이올린협주곡', 생상 '동물의 사육제' 로시니 오페라 서곡들, 칼 오르프 '카르미나 브라나'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일 시 8월 13일(화), 26일(월), 27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26일 강좌는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3일(화)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르네상스 시대의 모음곡과 마드리갈, 특히 마드리갈에서 '가사 그리기' 작곡법 읽기에 대해 알아본다.

● 강사/곽근수(음악평론가)

26일(월) 색이 삶을 말한다 '미술의 눈이 된 색채, 화가를 말한다'_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편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로, 17세기 풍속화의 대가이자 '빛의 달인'이라 불리는 요하네스 베르메르

전시 | Display

강강훈 개인전

일 시 7월 10일(수)-8월 25일(일) 조현화랑
문의 조현화랑 747-8853

얼굴의 미세한 솜털과 땀구멍까지 세밀히 묘사해 사진으로 착각하게 하는 인물화 연작을 선보이는 강강훈은 극사실주의의 기본원리인 '리얼리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미술사조의 특징을 배제하는 작품을 선보여왔다.

여름방학 특별기획 김계현 케플 블록展

일 시 7월 31일(수)-9월 8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르의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색이 삶을 말한다' 8월 강좌.

베르메르는 우리에게 대표작인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로 잘 알려진 작가로, 그만의 빛과 색채가 전하는 바로크 시대의 삶과 생활의 가치를 살펴본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27일(화)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새로운 음악어법이 다양하게 요동치는 시대에 살면서 무수한 고민을 했던 작곡가로, 핀란드의 국보로 일컬어지는 장 시벨리우스의 굴곡진 삶과 예술에 대해 알아본다.

● 강사/곽근수(음악평론가)

제142회 알바트로스 詩낭송콘서트 시민을 위한 베스트 애송 명시 낭송회

일 시 8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거장의 음악_영화음악 III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좋은음악&좋은만남'은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올해 5월 700회 특집 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6일(713회) 원초적 본능-제리 골드스미스
13일(714회) 아메리칸 뷰타-토마스 뉴먼
20일(715회) 인생의 회전목마-히사이시 조
27일(716회) 이달의 책 읽기 '천년의 질문'(조정래 저, 해냄)

청초 이석우 회고전 목향의 그늘 아래

일 시 7월 19일(금)-8월 19일(월) 미광화랑
문의 미광화랑 758-2247

소재의 관념성을 탈피하고 우리의 풍토적 정서와 애환, 향수가 깃든 주변의 소박하고 진솔한 서민적 삶의 세계를 화폭에 담은 청초 이석우 회고전.

타워갤러리 기획 한국의 멋 부채-선면예술전-

일 시 8월 1일(목)-8월 31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예술가는 왜 가난해야 할까

독자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국제신문은 7월 16일자 특집 시리즈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역 예술인 절반 ‘투잡’ 된다. 무대 대신 알바 현장으로 - 1년간 무대 올라도 1000만 원 못 벌어...”로 요약되는 부산지역 예술인 실태가 그것입니다. 예술활동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겸업이 일반화되면서 이례적인 부작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정된 연극공연에 알바로 바쁜 배우들이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자 연출가가 끝내 공연 연기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연극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현악기를 배우고 예고와 국립대학을 거쳐 유학을 갔다 온 음악인의 사례도 들었습니다. 민간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지만, 연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레슨과 학원 강사를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해서 실력을 갖춘 음악인이 돼도 연주할 곳을 찾지 못해 무대 밖을 떠돌거나 결국 무대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 특집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의 이런 현실은 기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이 순수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2017년 한해 평균 1,281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간 순수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예술인도 28.8%나 됐습니다. 몇 년 전 가난한 젊은 여성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술가는 춥고 배고프다’는 말을 귀에 박히듯 들어와서 그걸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 전 우리나라 ‘헝그리복서’들이 세계 챔피언을 줄줄이 ‘먹었던’ 시대가 있었지요. 그래서 복싱은 배고픔과 관련 있다는 믿음이 강했었습니다. 몇몇 가난 속에서 떠오른 성공한 예술가들의 사례를 들어 ‘예술도 배가 고파야 나온다’는 그럴싸한 말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국민 거의가 가난했던 시절이었지요.

대략 먹고 살만해진 요즘에도 예술가는 왜 가난하다고 할까요?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이자 미술작가인 한스 애빙은 ‘예술가는 왜 가난해야 할까’라는 책에서 그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위의 상징인 정부지원을 받는 예술가들을 보고 너도 나도 예술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나 예술계는 ‘승자독식’의 성격이 강해서 일부만 그런 혜택을 받게 되거나 소득이 높아지고, 나머지 파이를 나누어야 하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숫자가 늘어난 만큼 더 가난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보다 시장이 훨씬 큰 스포츠분야도 그 하나지요. 한 때 박세리가 미국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골프 지망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세리키즈(kids)’들이 지금 미국 LPGA에서 역시 맹활약하고 있죠. 그러나 이 지망생들 중에 LPGA에 진출하는 이는 극히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고소득의 유명 선수 대열에 끼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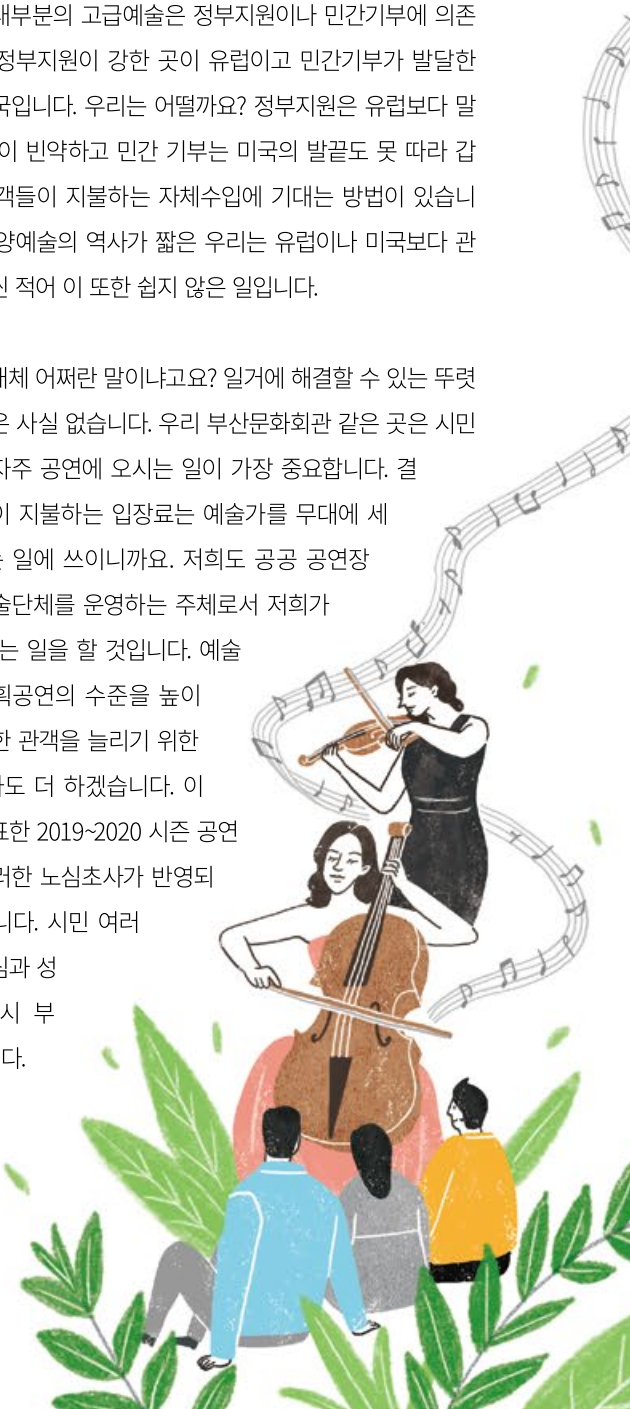
그렇다면 예술가들 혹은 예술집단(예술단체 등)의 가난은 예술만이 가지는 독특한 구조에서 찾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술시장의 특성이 여러 있지만 그중에서도 1966년 미국의 두 경제학자들(보몰과 보웬)이 주장한 ‘시장실패’론이 공연예술계에서 인정하는 권위 있는 이론으로 통합니다. 이들은 『공연예술 경제적 딜레마』에서 “자동차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은 기술이 발달하고 부품이 표준화되면서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적어도 꾸준히 올라가지는 않지만, 예술-특히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서 그 제작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므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고, 늘 적자에 시달린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지원하지 않으면 적자폭이 점점 커져서 시장에서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이론도 있습니다. 서비스 상품의 특성에는 ‘생산과 소비의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술 중에서도 특히 공연예술은 예술가들의 공연을 관객들이 동시에 관람하는, 생산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

는 속성 때문에 한 번에 정해진 객석만큼만 티켓을 팔수밖에 없습니다. 영화가 전 세계 수만 개의 영화관에서 하루에도 많게는 수천만 장의 티켓을 팔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품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연예술가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요소들인 것이지요. 더구나 이런 예술은 어려서부터 경험과 교육에 의해 취향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소비가 일어나게 되므로 단기간에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는다고 하니,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급예술은 정부지원이나 민간기부에 의존합니다. 정부지원이 강한 곳이 유럽이고 민간기부가 발달한 곳은 미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요? 정부지원은 유럽보다 말할 수 없이 빈약하고 민간 기부는 미국의 발끝도 못 따라 갑니다. 관객들이 지불하는 자체수입에 기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서양예술의 역사가 짧은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관객도 훨씬 적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나고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부산문화회관 같은 곳은 시민들께서 자주 공연에 오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관객이 지불하는 입장료는 예술가를 무대에 세워드리는 일에 쓰이니깐요. 저희도 공공 공연장이자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술단과 기획공연의 수준을 높이고 부족한 관객을 늘리기 위한 노심초사도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019~2020 시즌 공연에도 그러한 노심초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소식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베를린 행사 참가

8월 7일 독일 베를린 하이마타펜 노이퀼른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주최로 마련되는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독일 베를린 행사에 참여한다. 8월 7일 독일 베를린 하이마타펜 노이퀼른(Heimathafen Neukölln)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히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기원을 위한 '부산-베를린 친선 평화 음악회'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과 미하엘 뮐러 베를린시장 등 양국 시장과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무대에 선다.



수석지휘자 최수열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 1악장,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 아리랑, 부산찬가 등 양 도시간의 문화적 우호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 (재)부산문화회관 롯데문화재단 공동 주최 최수열과 조진주의 러시아 나이트

8월 13일 화요일 오후 8:00 서울 롯데콘서트홀

지난 1962년 창단된 후 부산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8월 13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서울관객들과 만난다. (재)부산문화회관과 롯데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무대

에서는 최수열과 조진주의 러시아 나이트 '부산시향, 열정의 울림'이라는 타이틀로 차이콥스키와 림스카코르사코프 등 열정 넘치는 러시아 작곡가의 음악으로 한 여름밤 무더위를 식힌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4월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를 통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며 탁월한 균형감으로 수준높은 연주를 펼친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함께 한다.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센터 개관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지난 7월 8일,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관람을 위해 고객지원센터를 개관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층 로비에 위치한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직원 1명과 상담사 4명이 상주하며 공연 문의 및 안내 등 공연정보에

대한 일원화된 체계적인 응대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합티켓 발권 창구로 운영되며 상시 티켓 발권 서비스로 시즌제 등 사전예매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센터 607-6111~3

◆ (재)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재단, BNK부산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용관)이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에 이어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7월 4일 부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과 지역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서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역 예술 생태계 지원을 체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두고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양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시비 지원사업의 공연전시 지원 범위 확대 협력 △지역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유무형 콘텐츠의 공동 기획개발 추진 등을 협약했다.

또,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7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접견실에 열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을 통해 BNK부산은행으로부터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후원금으로 '2019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을 비롯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혜택을 더하다+ 감동을 더하다+ 2019 하반기 플러스무료회원 가입 이벤트 진행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8월 1일부터 부산문화회관의 인지도 향상과 유료관객 점유율 증대를 위한 2019 하반기 플러스무료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플러스무료회원은 재단법인 출범 3년을 맞아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상반기 처음 마련한 무료회원 제도로, 지난 3월 1일부터 6개월간 진행했던 상반기 가입 이벤트에서는 총 16,579명이 플러스무료회원으로 신규 가입했다. 특히 이번 이벤트기간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은 추첨을 통해 486명에게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다. 2019 하반기 플러스무료회원 가입 이벤트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섯달간 진행되며,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팝업창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플러스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전시 정보를 문자,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이번 하반기 이벤트 기간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도 2020년 1월 추첨을 통해 2020 부산문화회관 상반기(1월~6월) 공연 초대권 10명을 비롯해 정기회원권, 무료주차권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71, 6078)

◆ 2019 부산신진예술인페스티벌(가칭) 초청작 선정공모

시민들 대상으로 축제 명칭공모도 함께 진행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예술인 스타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신진예술인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한다. 또, 이번 축제를 위해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산지역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신진예술가의 공연예술작품들을 공모한다.

공모 자격요건은 만 39세 이하의 부산거주 예술단체 혹은 프로젝트로 연극,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 개인보다는 단체나 프로젝트 중심의 공연예술 전 장르에 한한다. 특히 지금까지 (재)부산문화회관이 챔버페스티벌이나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제작 등을 통해 음악분야의 많은 신진예술인들을 발굴해왔으며 향후 오페라 하우스, 국제아트센터 건립 이후 부산문화회관의 지형 변화를 고려하여 음악 장르는 기악, 성악보다는 극음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기간은 8월 11일까지이며, 이메일(bch@bscc.or.kr)에 한해 접수 가능하다. 선정된 총 10여편의 작품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제작비를 지원받아 축제기간동안 부산문화회



관과 부산시민회관 공연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부산신진예술인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의 신진예술인 발굴과 ‘Made in Busan’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한편,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2019 부산신진예술인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정책 전문가, 문화기획자, 축제기획자, 평론가 등 13인의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축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초청작 공모와 함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신진예술인페스티벌의 축제 명칭을 공모한다.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메일(kjy17@bscc.or.kr)로 접수받으며, 선정작에 한해서는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4, www.bscc.or.kr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1회 창작극 대본공모전 제1회 부산청소년 공연감상문 공모전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후원으로 제1회 창작극 대본공모전과 제1회 부산청소년 공연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선 제1회 창작극 대본공모전은 지역 신진예술인 및 부산레퍼토리 발굴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예술인을 포함해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다. 분야는 순수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3개 분야로, 분야별 수상작에 한해서는 7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작 중 1편에 한해서는 제작지

원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메일(book2580@bscc.or.kr)에 한해 접수 가능하다.

청소년들의 공연관람을 통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제1회 부산청소년 공연감상문 공모전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각 분야별 대상(후원회장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8명의 수상자에게 상금 및 상장, 부상이 제공된다. 또, 수상작은 (재)부산문화회관에서 매월 발행되는 ‘예술에의 초대’에 게재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새롭게 시도한 시즌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관람대상작을 시즌프로그램으로 제한하며, 원고지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6~20매로 한정한다. 접수는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메일(book2580@bscc.or.kr)에 한해 접수 가능하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60~8, www.bscc.or.kr

2019부산 신진예술인 페스티벌(가칭)



초청작 선정 공모



(재)부산문화회관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신진예술인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합니다. ‘부산예술인 스타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본 축제는 부산의 신진예술가의 공연예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 부산문화회관은 지역의 신진예술인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하여 ‘Made in Busan’ 레퍼토리 및 신진 스타를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유망예술인들의 창작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축제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산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공모내용

- **공모기간** 2019. 7. 11(목) ~ 8. 11(일)
- **선정규모** 10팀 내외 (예정)
- **신청자격** 1 만39세 이하, 거주지가 부산인 예술가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 및 프로젝트
2 초연, 재연(단체, 프로젝트 등) 작품
- **공모부문** 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공연예술분야 전 장르
- **지원내용** 작품초청료(10,000천원-60,000천원), 홍보, 운영지원 등
※ 공연 후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으로 초청(예정)
- **축제일정** 2019. 12. 26(목) ~ 12. 31(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2월 26일~29일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12월 28일~3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챔버홀, 사랑채극장 : 12월 26일~31일
※ 위 일정은 극장사용 가능한 기간임
- **심사기준** 첨부문서 참조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19. 7. 11(목) ~ 8. 11(일)
- **접수기간** 2019. 8. 5(월) ~ 8. 11(일) 24: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bch@bscc.or.kr)
- **문의전화** 051-630-5231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사업팀장 안주은)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2019 부산신진예술인페스티벌 축제명칭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19. 7. 25 ~ 8. 23 (30일간)
- 응모자격** 누구나
- 시상계획** 선정작 1건
상금50만원 (세금포함)
참여작 50건
상품권 1만원+축제작품 초대권 2매 (무작위 추첨)

응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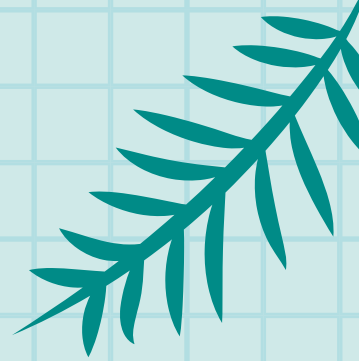
- 제출서류** 붙임 명칭 제안서 1부 (붙임)
- 제출방법** 이메일 (kgy17@bscc.or.kr)
- 문의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사업팀(051-630-5234)



※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1회 창작극 대본공모전 공고



☑ 공모개요

■ 공모목적

지역예술인의 공연제작지원 및 제작기회 제공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공공지원사업 확대

■ 공모부문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3개 부문
(※ 분량 제한없음)

■ 신청자격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에 관심 있는 부산시민 누구나 지원가능
(※ 나이제한 없음)

■ 유의사항

-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 시 신청할 수 없음
-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지면에 발표된 작품
- 공연화된 작품
 -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쇼케이스는 미발표 작품으로 간주
-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심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공연으로 간주하는 작품

■ 최종선정대상작품은 (재)부산문화회관과

계약체결 후 제작지원 가능
※ 계약시 필요서류 제출

☑ 수상내용

■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부문별 수상(총 3명)

- ※ 서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트로피 수여
- ※ 수상작 중 1편을 선정 제작지원(회관 사정에 따라 1편 이상 제작 예정)
- ※ 해당분야 선정작이 없을 경우 해당자 없음으로 공지 가능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창작극 대본 심사(분야별)

☑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19년 8월 1일(목)~12월 31일(화)
- 접수기간
2019년 12월 20일(금)~12월 31일(화) 24:00까지 (12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book2580@bscc.or.kr)
※ 3일 이내 접수회신메일 미수신시 반드시 확인필요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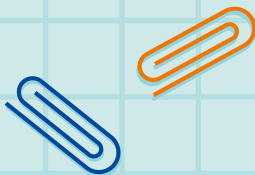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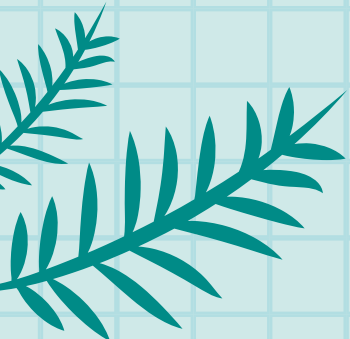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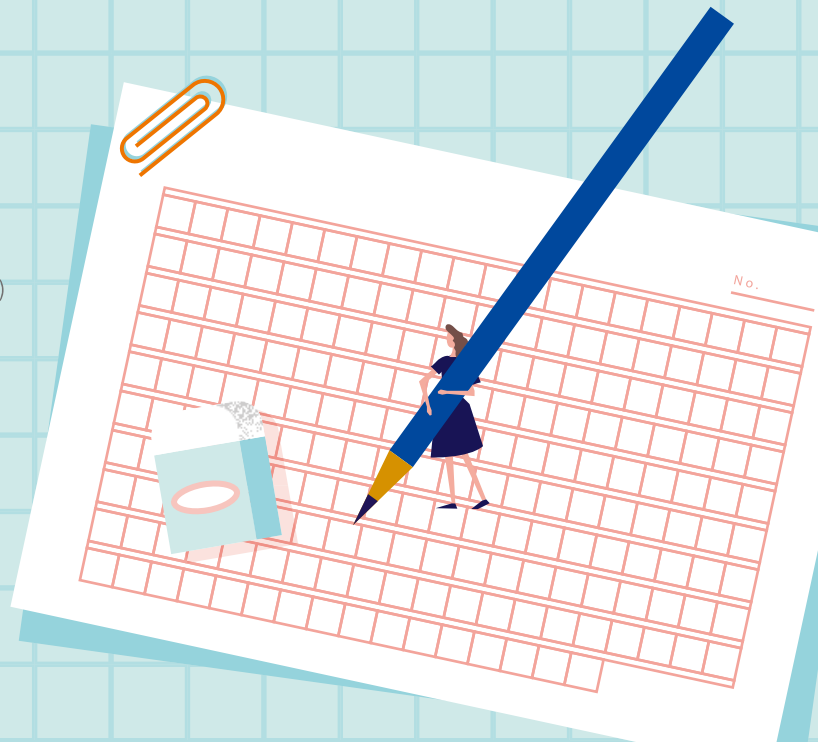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대본, 기타보완자료
(CD/DVD, 악보 또는 음원파일, 추가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추가제출서류

저작권관련계약서(선정작에 한해 필요시 제출)

☑ 문의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 홍보마케팅팀(607-6070~8)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1회 부산청소년 공연감상문 공모전

☑ 공모내용

-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중 작품 1편 이상 관람 후 감상문작성
- 200자 원고지 16~20매 분량(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형식 상관없음)
※ 응모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주관 기관의 소유이며, 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등 자료에 사용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부산소재 중·고교 재학생, 대학생 개인

☑ 수상내용

- 대상(후원회장상) : 총 3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1명, 상금 70만원)
- 최우수상: 총 6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2명, 상금 50만원)
- 우수상: 총 9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3명, 상금 30만원)
※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트로피, 부상 수여
※ 수상자 중 1명에게 부산광역시장상 별도 수여

☑ 접수기간

- 2019년 12월 20일(금) - 12월 31일(화)(12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book2580@bscc.or.kr)

☑ 결과발표

- 2020년 1월 31일(금)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051-607-6070~8



제33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참가 단체 모집

☑ 공연명

- 제33회 부산청소년합창제
- 일시, 장소 : 2019년 11월 16일(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모집단체

-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합창단(10개 단체 내외)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8월 13일(화)~9월 11일(수) 18:00까지
- 교 부 처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 접 수 처 : 전자우편 접수(hwanycap@naver.com)
- 제출자료 : 참가 신청서 1부, 연주곡목 및 악보 각 1부, 합창단 프로필 1부,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 사진 각 1부

☑ 실 의

- 2019년 9월 17일(화)

☑ 심의위원

- 수석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성악지도자

☑ 최종발표

- 2019년 9월 20일(금) ※선정단체 개별 통지

☑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051-607-3117



혜택을 늘리다+ 감동을 더하다+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 회원 모집캠페인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으세요

◆ 모집기간

2019년 8월 ~ 12월

◆ 대 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신청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팝업창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만 기입

◆ 당첨자 발표

2020년 1월 중

◆ 경품내용

선물 1	10명 (1인 2매)	2019 부산문화회관 전 공연 초대권
선물 2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
선물 3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
선물 4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
선물 5	100명 (1인 5매)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선물 6	100명	월간 <예술에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 7	100명	부산문화회관 텀블러

* 상품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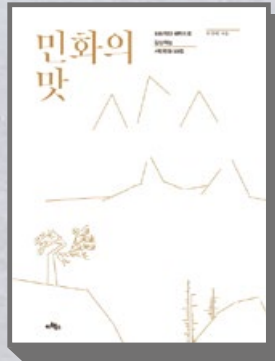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심슨 가족이 사는 법

윌리엄 어윈 외 지음, 유나영 옮김
글향아리 / 490p / 2만2천원

1987년 버라이어티 쇼인 ‘트레이시 울먼 쇼’의 한 꼭지로 방영을 시작한 만화 <심슨 가족>. 1989년부터 폭스 TV에서 독립 프로그램으로 매주 한 편씩 방영되기 시작해 30년이 지나 시즌 30을 달리고 있다. 미국 시트콤 및 애니메이션 사상 최장 기간 방영을 매 시즌 갈아치우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만화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캐릭터이다. 1999년 세기 말 ‘타임’지는 ‘20세기 최고의 TV 시리즈’로 <심슨 가족>을 꼽았으며, 2000년에는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인생을 사랑하는 한심한 가장 호머, 평범하고 상식적인 가정주부 마지 심슨, 악동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바트 심슨, 채식주의자 페미니스트-진보주의자 리사 심슨, 공갈척꼭지를 물고 침묵의 가치를 전파하는 매기 심슨, 약덕 사장 번스와 착한 이웃사촌 네드 등. <심슨 가족>은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심오한 철학자들이다. “직장이 맘에 안 드는 사람은 파업 안해. 매일 제때 출근해서 엉터리로 대충 일 하지”라는 호머의 말은 웃음 뒤에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철학의 눈으로 읽는 호머 심슨과 그 가족이 사는 세상을 소개한다.



민화의 맛

박영택 지음
아트북스 / 384p / 2만5천원

민화를 구분하는 용어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흔히 궁중민화는 직업화가인 화원이 그린 정형화되고 엄격하며 화려한 채색의 완성도가 높은 민화를 말하고, 서민민화는 무명의 화공이 그린 지극히 자연스럽고 어눌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민화를 일컫는다. 박영택 미술평론가가 80점의 서민민화를 소개하며 회화적인 매력을 짚어준다. 저자는 “궁중민화가 일류 셰프들이 만든 고급요리 같다면, 서민민화는 어머니가 정성껏 지은 소박한 ‘집밥’ 같다”고 말한다. 궁중민화는 선묘와 구성이 탄탄하고, 채색이 시각적인 피로감을 줄만큼 강렬하다. 반면에 서민회화는 길들여지지 않은 솜씨이지만 소박하고 천진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얼핏 봐서는, 아니 자세히 봐도 미완성이자 ‘무지하게’ 못 그린 그림 같은데, 볼수록은근한 매력에 감돈다”는 저자의 말에서 서민민화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이 책은 서민민화의 회화적 특질과 조형적 특성에 집중하지만 서민민화가 소박한 맛을 품은 것처럼 저자의 글도 서정적이다. 민화를 그린 옛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자의 따스한 시선이 글에서도 묻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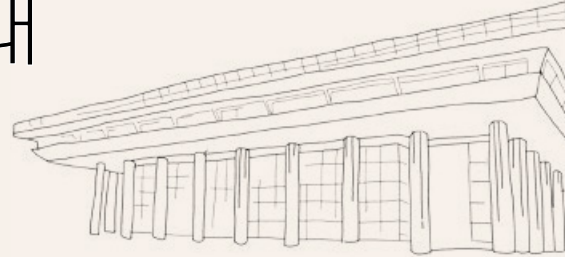
맛대맛

백석, 채만식 지음
가가날 / 240p / 1만3천5백원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쟁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땀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팽의 고기를 좋아하고” 백석 시인의 시 ‘국수’ 중 일부이다. “아직 약이 오르지 않은 풋고추를 먹는 향기가 매우 입맛에 좋았다. 오늘 비로소 대문 밖 텃밭에 심은 고추밭에서 연한 풋고추를 따다가 저녁밥에 고추장을 찍어 먹었다. 먹으면서 생각을 했다. 농사란 재미있는 것이라고.” 소설가 채만식의 글 ‘농사’ 중 일부이다. 백석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 채만식의 고향은 호남평야가 가까운 전라북도 군산이다. 두 작가가 한국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큰 봉우리다. 백석의 작품에는 무수한 음식이 등장한다. 고향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음식이라는 장치를 통해 시적으로 승화했다. 소설가 채만식은 290여편에 이르는 소설, 희곡, 수필 등의 작품에서 음식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이 책은 음식이 등장한 두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북녘의 백석은 ‘시인의 맛’으로, 남녘의 채만식은 ‘소설가의 맛’으로 이름을 붙였다. 문학작품 속에 녹여낸 음식의 맛은 더 깊은 맛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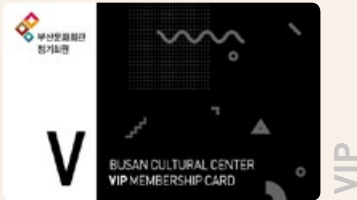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동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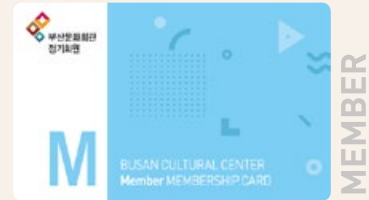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 입장료의 할인이 달라질 수 있음.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 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9년, 2020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9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8월 14일(수)-30일(금)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회당 선착순 20매, 8월 14일, 20일 공연은 제외)

2019 마티네 콘서트

8월 28일(수), 10월 2일(수), 11월 20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8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종료]

9월 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9월 19일(목)-2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회당 선착순 20매)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

9월 28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영국 국립극장의 공연을 라이브로 만나다 ‘NT Live’

10월 6일(일), 11월 10일(일), 2020년 2월 15일(토),
2월 29일(토) 오후 2: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30매)

프렐조카주 발레단 ‘프레스코화’ [종료]

11월 6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선착순 30매)

어린이 뮤지컬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헌터즈’

11월 1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백혜선 독주회 [종료]

12월 3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선착순 30매)

2019 제야음악회

12월 31일(화)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선착순 40매)

빈필하모닉 앙상블 2020 신년음악회 [종료]

2020년 1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선착순 40매)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홍보마케팅팀(607-6074~6, 6078)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 이사회원

강서룡 호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포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중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옥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흥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엘가 대표
 이성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이진영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임은자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민섭 정의화 (전)국회의장
 정영희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정영희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중래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충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 * 후원회원 초청 음악회 개최
(연 4회 이상)

- *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제공
동반 1인 포함/사전신청자에 한함

- * 대극장 로비 명예의전당 네이밍

-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3층 로비 - 신설예정

-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 회원패 증정

- *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 *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사항**

구분	후원 금액	연회비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 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 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 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전시, 아카데미 등은 사전 신청자에 한함.
-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후원회 가입 익년도부터 별도의 연회비 있음.

새로운 감동, 다채로운 재미, 깊이를 더한 품격
(재)부산문화회관 2019-20 시즌 프로그램

연극



9.7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소극장 라이브 뮤지컬의 명불허전
<지하철 1호선>
 R 30,000 / S 20,000



9.19 (목)~**22** (일) | 문화회관 중극장
 목·금요일 7:30pm, 토·일요일 4:00pm
셰익스피어 정치 비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R 30,000 / S 20,000



10.6 (일), **11.10** (일) 2:00pm, 6:00pm
 | 문화회관 중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 연극-NT Live
<프랑켄슈타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ll Seats 20,000



20.2.15 (토), **2.29** (토) 2:00pm, 6:00pm
 | 문화회관 중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 연극-NT Live
<헤다 가블러>,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All Seats 20,000

페스티벌



8.14 (수)~**30** (금) | 문화회관 챔버홀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2019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All Seats 20,000



12.26 (목)~**31** (화)
 | 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챔버홀,
 시민회관 소극장
2019 부산 신진예술인 페스티벌
 ※세부 일정 및 내용 추후 공지 / 패키지 제외

무용



11.6 (수)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환상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주 발레단 <프레스코하>
 R 80,000 / S 60,000 / A 40,000



12.6 (금)~**7** (토) | 문화회관 대극장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R 80,000 / S 60,000 / A 40,000



12.13 (금)~**14** (토) | 시민회관 소극장
 금요일 11:00am, 7:30pm, 토요일 3:00pm
어른들이 보는 겨울동화 시리즈
<미운 오리 새끼> (렉처퍼포먼스)
 (예술감독 이태상)
 All Seats 20,000

클래식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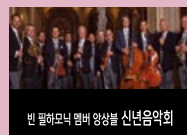
10.25 (금)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 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V 50,000 / R 30,000 / S 20,000



11.14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 (Pf. 임동혁)
 V 120,000 / R 90,000 / S 60,000 / A 30,000



12.3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R 50,000 / S 30,000 / A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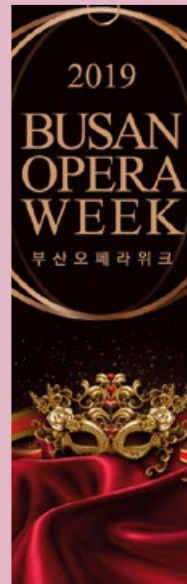


20.1.1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 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R 70,000 / S 50,000 / A 30,000 / B 20,000



20.2.15 (토) 5:00pm | 문화회관 대극장
스윗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R 70,000 / S 50,000 / A 30,000 / B 20,000

오페라



9.30 (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R 50,000 / S 30,000 / S 20,000

10.1 (화) 7:30pm | 문화회관 중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갈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
 R 50,000 / S 30,000 / S 20,000

10.5 (토)~**6** (일) 6:0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전막 오페라
<살로메>
 V 100,000 / R 70,000 / S 50,000 / A 30,000

10.11 (금)~**13** (일) | 문화회관 대극장
 금요일 7:30pm, 토·일요일 6:00pm
극적인 밀도, 음악적 긴장과 조화,
베르디 최고의 오페라 <리골레토>
 V 100,000 / R 70,000 / S 50,000 / A 30,000

가족 & 어린이



8.30 (금) 7:30pm | 문화회관 중극장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R 20,000 / S 10,000



9.28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이왕자 이야기>
 R 20,000 / S 10,000



11.16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시아와 친구들의 보물원정대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 헌터즈>
 R 20,000 / S 10,000

마티네 콘서트



8.28/10.2/11.20 (수) 11:00am
| 문화회관 중극장
오전에 듣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All Seats 10,000 ※티켓 예매 진행 중(매키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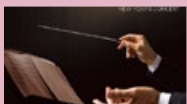
콘서트



12.31 (화) 10:3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제아음악회 (객원지휘 여자경)
R 30,000 / S 20,000 / A 10,000
※세부 내용 추후 공지 / 패지키 제외



9.6 (금)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조선의 아이돌, 오방신 이희문의
<거침없이 열씨구>
V 50,000 / R 30,000 / S 20,000



20.1.21 (화)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새해음악회
All Seats 10,000



20.2.14 (금) - **15** (토) | 시민회관 소극장
금요일 7:30pm, 토요일 5:00pm
추억의 포크송 <동물원 콘서트>
R 55,000 / S 44,000

부산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안무자 선정 공연 시리즈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부산시립합창단



6.28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전쟁과 평화 - 6월의 기억>
(객원지휘 김인재)
All Seats 10,000



9.26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자연을 노래하다>
(객원지휘 이기선)
All Seats 10,000



11.19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세계를 품다>
(객원지휘 Adrian Stanache)
All Seats 10,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8.22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
<마스터 피스 in 부산>
(객원지휘 김종욱)
All Seats 10,000



10.31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
<공존(共存): 자연 그리고 인간>
(객원지휘 박상후)
All Seats 10,000



12.24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
<Odyssey : 긴 여정>
(객원지휘 진성수)
All Seats 10,000



20.2.25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
<서으로 가는길>
(객원지휘 문형희)
All Seats 10,000

부산시립무용단



11.28 (목)~**29**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南風 - South Breeze>
(객원안무 이정윤)
All Seats 10,000



20.3.19 (목)~**2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Odyssea FE2020b>
(객원안무 김수현)
All Seats 10,000

부산시립예술단 시즌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9.27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4회 정기연주회
<프렌치 호른>
(지휘 최수열, 호른 김홍백)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0.25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
(지휘 최수열, 첼로 김두민)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1.22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6회 정기연주회
<아름.열.열하나.>
(지휘 최수열, 오르간 신동일)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1.29 (금) 7:30pm | 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실내악 공장>
All Seats 10,000



12.4 (수) 9:00pm | 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심야음악회> (지휘 최수열, 이민형)
All Seats 10,000



12.19 (목)~**2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7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지휘 최수열)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20.1.16 (목), **1.17**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8회 정기연주회
<2020 신년음악회> (지휘 최수열)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20.2.14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지휘 아드리앵 페뤼송)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부산시립극단



12.12 (목)~**14** (토) | 문화회관 중극장
목·금요일 7:30pm, 토요일 5:00pm
부산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오델로> (객원연출 양지웅)
All Seats 10,000

Package Ticket

패키지 티켓 오픈

6.27 (목)

오후 2시

2019-20 BSO

명품 패키지

- 명품 공연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명품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명품 1.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 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명품 2.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관능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쥬 발레단 <프레스코화>
 명품 3.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명품 4.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명품 5.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명품 6.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명품 7. 스윗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최고 좌석등급에 따라 VIP석 및 R석 교차 예매 가능

연극 패키지

- 연극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연극 1. 소극장 라이브 뮤지컬의 명불허전 <지하철 1호선>
 연극 2. 셰익스피어 정치 비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 60,000 > 42,000 Ⓞ 40,000 > 28,000

NT Live 패키지

- 4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NT Live 1. <프랑켄슈타인>
 NT Live 2.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NT Live 3. <헤다 가블러>
 NT Live 4.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클래식 음악 패키지

- 음악 공연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음악 공연 3편 이상 구매 시 20% 할인

음악 1.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 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음악 2.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음악 3.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음악 4.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음악 5. 스윗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최고 좌석등급에 따라 VIP석 및 R석 교차 예매 가능

오페라 패키지

- 오페라 공연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오페라 공연 2편 이상 구매 시 30% 할인

오페라 1. 2019 오페라 WEEK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2. 2019 오페라 WEEK 갈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
 오페라 3. 2019 오페라 WEEK 전막 오페라 <살로메>
 오페라 4. 극적인 밀도, 음악적 긴장과 조화, 베르디 최고의 오페라 <리골레토>

* 최고 좌석등급에 따라 VIP석 및 R석 교차 예매 가능

무용 패키지

- 무용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무용 1.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환상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쥬 발레단 <프레스코화>
 무용 2.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무용 3. 어른들이 보는 겨울동화시리즈 <미운오리새끼>(렉처퍼포먼스)

Ⓜ 180,000 > 144,000 Ⓞ 140,000 > 112,000 Ⓐ 100,000 > 80,000

Season Program

패키지 문의 및 예매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ARS ① 고객센터

ARS ② 외국어 문의

멤버 페스티벌 패키지

- 페스티벌 공연 10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페스티벌 공연 5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페스티벌 공연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키즈 패키지

- 어린이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어린이 1.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어린이 2.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이왕자 이야기>
어린이 3. 시아와 친구들의 보물원정대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헌터즈>
④ 60,000 → 30,000 ⑤ 30,000 → 15,000

부산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안무자 선정 공연시리즈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패키지

- 공연 7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 국악 공연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합창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무용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거장 1.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김민재)
거장 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김종욱)
거장 3.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이기선)
거장 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박상후)
거장 5.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Adrian Stanache)
거장 6.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객원안무 이정윤)
거장 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진성수)
거장 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문형희)
거장 9.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객원안무 김수현)

부산시립예술단 자유패키지(총 10개)

- 교향악단 2019년 특별연주 및 2020년 정기연주회, 극단 공연 등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예술단 공연 2편 이상 동일등급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2019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외

자유 패키지

- 문화/시민회관 공연 5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문화/시민회관 공연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제외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전화예매만 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 상품은 묶음 상품으로 개별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 상품은 구성공연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 / 전화취소만 가능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Body Language

2019 안무가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2019. 8. 23 (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사람연습(chapter1. 무례_ 침범하지 않기)

안무_ 김시현

틀IV(어떠하리...)

안무_ 정진희

청색시대(Blue period)

안무_ 김미란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관람료 5,000원(만 6세 이상 관람) 문의 607-3121~2 /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V

오전에 펼쳐지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유쾌한 해설로 명품콘서트를 선보입니다.

2019. 8. 28. (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김봉미



소프라노 박은주



테너 김성진



바리톤 안세범



해설 손지현

C. Gounod

구노

(1818 - 1893)

로미오와 줄리엣

Opera <Romeo et Juliette>

서곡

Overture

꿈속에 살고 싶어라

Ah! Je veux vivre

밥, 거짓말의 여왕

Mah, la reine des mensonges

사랑, 사랑, 나의 온 존재가 흔들린다

L'amour, l'amour, oui, son ardeur a trouble

사랑이여 용기를 주세요

Amour, ranime mon courage

파우스트

Opera <Faust >

발레왈츠의 음악

music of ballet waltz

이곳을 떠나기 전에

Avant de quitter ces lieux

정결한 집

Sahr! demeure chaste et pure

보석의 노래

ah! je ris de me voir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Alerte, alerte

[선착순 이벤트]

음료와 빵을
무료로 드립니다.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감동의 문학콘서트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시 나 기

2019.8.30(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

(5세 이상관람)

문의 및 예매

www.bscc.or.kr

051)607-6000(ARS1번)



거침없이 연세구

오방신,
조선의 아이돌 이희문

| with 농놈, 음악동인 고물, 숙씨스터즈 |

2019.
09.06.
(금)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 장 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예매 051)630-5200 www.bscc.or.kr
주최 / 주관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에서 다시 달리는

지하철 1호선

Rock
Musical

2019. 9. 7.(토) 오후 3시 | 번안·연출 김민기 | 음악감독·편곡 정재일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작 Volker Ludwig's <Linie 1 - Musikalische revue> | 음악 Birger Heymann | 제작 HAKCHON Theater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 문의 및 예매 www.bscc.or.kr 051)607-6000(ARS1번)

발 달 리

꼬드어

GGO DEUNG O

GOD DESIGN
산업자민부선정

if Award



Facebook



Instagram



Twitter

#꼬등어 #신제품
#여름 #인싸템
#페스티벌 #호캉스
#물놀이 #축제
(feat. 꼬등어 타투스티커)



꼬등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
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90, 101호 [T]051)636.1216 [E]info@designbusan.kr

KBRAIN POWER 두뇌역량 우수전통기업

우수디자인전문회사 Best Design Company in Korea

KOREA DESIGN AWARD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dot design design concept

if DESIGN AWARD 2017

K-ESP 기술전문기업

원천육성중소기업

셰익스피어 정치비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9. 9. 19(목) ~ 22(일)

목·금 7:30pm / 토·일 4: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주관 / 제작 (재)부산문화회관

